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일시 | 2016.8.8(월) 13:00 - 8.10(수) 13:20

장소 |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

주최 | 교육부

주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 대안교육지원센터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 첫째날

세부일정 : 2016. 8. 8(월) 13:00 ~ 8. 10(수) 13:20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3:00	등 록	
13:00~13:30	30' 인사말씀	
13:30~14:30	60' 대안교육 정책의 이해	최 경 자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
14:30~14:50	20' 휴 식	
14:50~16:20	90' 대안교육 10년, 20년	정 광 필 전)이우중고등학교 교장
16:20~16:40	20' 휴 식	
16:40~18:00	80' 위기청소년(학생)과의 만남과 성장	박 현 동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대표
18:00~19:00	60' 석 식	
19:00~21:00	120' 야외분임활동	

☐ 둘째날

시 간	내 용	발 표 자
8:00~9:30	90' 조 식	
9:30~10:30	60' 위기학생의 심리와 정신건강	지 구 덕 한서중앙병원 원장
10:30~10:50	20' 휴 식	
10:50~11:50	60' 신경정신과적 이해를 통한 대안교육과 위기학생 이야기 - 성모마음행복학교의 치유이야기 -	이 정 국 성모마음행복학교 교장
11:50~13:00	70' 중 식	
	동기개발 사례	
13:00~14:00	30' 학습동기 향상을 통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최 재 근 가온누리학교 교장
	30' 제2외국어 교육을 통한 동기회복 사례	고 성 혜 청소년희망학교 교장
14:00~14:20	20' 휴 식	
	진로탐색 사례	
14:20~15:20	30' 창의적 체험학습을 통한 진로탐색	박 은 혜 돈보스코학교 교사
	30' 학교를 넘어선 학교 - L.T.I. 프로젝트 -	하 태 종 태봉고등학교 교사
15:20~15:40	20' 휴 식	
15:40~17:00	80' 성장과 치유의 힐링드라마 - 함께 웃어요, 우리 -	한국드라마치료연구소
17:00~17:20	20' 휴 식	
17:20~18:10	50' 분임토의	
18:10~19:10	60' 석 식	

☐ 셋째날

시 간	내 용	발 표 자
8:00~9:30	90' 조 식	
9:30~10:10	40' 분임토의 결과발표	
10:10~10:30	20' 휴 식	
10:30~12:00	90' 대안교육 담당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 아르바이트, 아동학대, 가출, 소년보호제도 -	김 차 연 제주법률사무경영 진솔 변호사
12:00~12:20	20' 설문지 작성 및 연수 수료식	
12:20~13:20	60' 중 식	

CONTENTS



첫째날 8.8(월)

- 대안교육 정책의 이해 3
최 경 자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
- 대안교육 10년, 20년 13
정 광 필 전)이우중고등학교 교장
- 위기청소년(학생)과의 만남과 성장 25
박 현 동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대표

둘째날 8.9(화)

- 위기학생의 심리와 정신건강 35
지 구 덕 한서중앙병원 원장
- 신경정신과적 이해를 통한 대안교육과 위기학생 이야기 49
이 정 국 성모마음행복학교 교장
- 학습동기 향상을 통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57
최 재 근 가온누리학교 교장
- 제2외국어 교육을 통한 동기회복 사례 85
고 성 혜 청소년희망학교 교장
- 창의적 체험학습을 통한 진로탐색 95
박 은 혜 돈보스코학교 교사
- 학교를 넘어선 학교 107
하 태 종 태봉고등학교 교사

셋째날 8.10(수)

- 대안교육 담당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121
김 차 연 제주법률사무경영 진솔 변호사

부 록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자료 153



첫째날 8.8(월)

- 대안교육 정책의 이해
최 경 자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
- 대안교육 10년, 20년
정 광 필 전)이우중고등학교 교장
- 위기청소년(학생)과의 만남과 성장
박 현 동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대표





대안교육 정책의 이해

최 경 자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



대안교육 정책의 이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최경자

대안교육(대안학교)의 법적 근거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2항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대안교육(대안학교)의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제1항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 정책

- 학교 내 대안 교실 운영

(개요) 위기학생의 학교 부적응 해소 및 학업중단에 방을 위해 학교내에 대안학교를 실시하는 별도의 학급 설치

(내용) 시도교육청이 선정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기자재비 등 지원

(규모) 1,455교, 69억원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 정책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

(개요)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에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내용) 학교 부적응학생 및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
육기회 확대 및 위탁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규모) 236개기관, 18억원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 정책

- 공사립 대안학교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지원

(개요)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의 우수 대안
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대안교육 콘텐츠 및 우수
사례 확산 유도

(내용) 우수 대안교육 프로그램 공모, 심사 후 지원

(규모) 11억원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 정책

-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개요) 폐교 등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학업중단 및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5개 교) 지원

(향후일정) 시도 공모(9월) ⇒ 서면,대면평가(10월)
⇒ 선정 및 예산지원(10월)

(규모) 200억원(교당 40억원 내외)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 정책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 제작 배포

(개요) 시도교육청별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 제시

(내용) 위탁교육기관용, 원적교용

(배포) 2016. 10월(예정)

대안교육이란?

대안학교의 역할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우리의 역할



감사합니다.



대안교육 10년, 20년

정 광 필

전)이우중고등학교 교장



10년, 혹은 20년을 보내고, 이제 다시 10년!

정 광 필

전)이우중고등학교 교장

대안학교가 97년부터 시작했으니 어언 20년이 되어 갑니다. 돌아볼 이야기도 많고, 그 의미와 배경까지 이야기 하자면 일반론이 되어 싱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우학교를 중심으로 아주 구체적인 반성과 고민을 담아 보았습니다. 혹여 맞닿는 부분이 여럿 있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것들

아무래도 지나 온 10년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참 여러 가지를 꿈꿔왔었습니다. 뜻있는 시민이 함께 만드는 학교, 아이들 내면의 힘이 커지면 그 힘으로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진로로 찾아가게 되는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우리 학교'가 되는 것, 공교육 개혁의 모델 등. 지난 10년 동안 그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꿈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적 고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꿈의 상당부분을 이루어 내는 데 우리가 일조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일조보다는 조금 더 한 것 같죠? 뭐 하여튼 많은 것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그 덕에 상당히 제 자신을 '광내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역전의 용사들, 처음 시작했던 1,2,3년차에 거쳐서 여태껏 고생했던 분들.. 얼굴에 티가 나고 머리에 티가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미루고, 초반에 엄청 뛰어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광'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힘은 어디서?

여러 요인들을 우리가 이야기 해 왔지만,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 운동사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시도들이 다 좌절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이 가능해!' 이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끼리끼리 어디 골방에서 모여 떠들거나, 기껏 시도해봐야 학급에서 시도하는 정도였습니다. 시골의 어느

학교에서 뭐 시도해 본 것이 있겠지만, 정말 규모 있는 대도시에서 학교가 뭔가 시도하고 성사 시킨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증명했다고 봐요. 또 그를 바탕으로 여러 학교들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 저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선생님들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학교’ ‘우리의 일’ ‘내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사인 우리 자신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해 봉사한다는 개념이 아닌, 일에 있어 **주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자치, 자율, 학년 자치, **민주적 운영의 팀제**가 뒷받침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누가 일방적으로 독재하지 않고, 누가 지시하지 않고, 우리 방식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직적인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 ‘팀제 운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끌어가는 힘으로서의 **분명한 비전**을 우리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적용되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가 ‘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늘 두 마음이 있다

사람들 마음에 늘 ‘두 마음’이 있습니다. 뭐 누구 얘기를 하지 않고 저를 놓고 보자면요, 뭘 결정할 때는 꼭 번뇌가 생깁니다.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함께 해내고 어떻게 배려할까와 같은 제 마음 속의 **‘착한 짝’**이 얘기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아 열 받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저걸 다 받아주면 내가 죽어날 텐데’와 같은 **‘씩씩(?)’**이 꼭 얘기를 합니다. 이런 두 마음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결정할 때에는 착한 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을 돌아본다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설립자나 모두 다 많은 번뇌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착한 짝**이 한 얘기를 귀 기울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만 여기지 않고 우리 옆의 동료, 같이 함께 한 사람들의 착한 짝이 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서로 그것을 복돋으려** 노력한 것 같습니다.

주체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다고 이런 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이우학교 같은 성공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우리 내부의 착한 짝이 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했던 것. 그게 아마 가장 위력적으로 발휘된 것 같고, 그게 **우리 학교만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세로 아마 여기까지 밀고 올라온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도 그 이후에 조금 험한 야전(?)으로 돌아와서.. 백수의 세계와 서울시 교육청 시절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우학교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 마음속의 착한 싹을 귀담아 들으려고 한 노력이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껍데기 문제가 비단 이우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조직의 문제이고 사람이 살아나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인거죠. 특히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나, 설명을 안 할뿐이지 실제로 판단의 근본이 되는 건 ‘감정’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 즉,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없습니다. 결정은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해놓고, 그 설명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두 얼굴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도모할 때는 그 ‘착한 싹’을 어떻게 북돋을지에 대해 집중해야 하는 것 같고, 지난 10년 우리가 그것을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난관들

요새 지난 10주년 관련해서 학교평가도 새롭게 했고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많은 고민들과 여러 얘기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들리는 얘기’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활동 이야기를 하자면 그 동안 학교 초기 아이들의 해외통합기행을 놓고 보더라도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깨어나고 무언가를 찾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런 활동들이 아이들한테 ‘큰 자극’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이들이 활동 잘하고 기획도 잘하고 보고도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겉데기뿐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간의 차이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부러 A, B, C를 골고루 뽑으려고 했는데, 요새는 감당할 수 없는 C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좁혀지는 방식이 아니라 더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감당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2010,~2012 그러니까 제가 교장 임기를 마무리 할 때쯤에 전국에서 혁신학교를 준비하거나 시작하고 있던 분들이 저희 학교를 다녀갔습니다. 제가 요즘에 전국의 여러 학교들을 다니고 있는데 저는 모르는데 여러 사람들이 저희 학교를 다녀갔다고 하면서 “이우학교 덕을 참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우학교가 지금의 혁신학교와 같은 여러 변화들에 큰 기여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 학교를 찾아오는 학교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4년차가 된 혁신학교들, 우리 학교가 초기에 해왔던 것들을 여러 형태로 심화시킨 학교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학교들이 오히려 저희 학교보다 다른 새롭게 시작하는 혁신학교의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학교의 위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의 주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현재 달라진 위상을 직시하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어떻게 혁신할지를 ‘노골’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3년 후 이우학교는?

현재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태도 뭐 아직은 ‘폼’이 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를 지속하면서 3년이 지나면 이우학교는 어떤 상황일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 좀 더 나아가서 5년이 지나면 어떨까? 우리에게 지금 이런 상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방식으로 하자면, 착한 짝이 한 이야기와 껍떡이가 한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결정하게 될까? 전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번뇌는 늘 있었지만, 그래도 결정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것은 착한 짝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던 우리들이 이제 좀 지쳤잖아요? 특히 우리 노땅들 입장에선 말 그대로 죽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껍떡이가 참 말이 많아졌어요**. 현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보면 착한 짝이 하는 말은 내팽개치고, 껍떡이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기 아이는 커가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교사라고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함부로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17년 된 초기 대안학교들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고, 굉장한ダイナ믹을 이루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7,8년 사이에 그 다이내믹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하는 아이들도 본래 기대하던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아이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풀무의 정승관 전 교장선생님이 이우학교에서 강의 하셨다죠? 그러면 60년된 풀무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은 껍떡이가 말하기 곤란한 ‘문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껍떡이에 귀 기울이면 그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힘이 작동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골에 있는 학교에 졸업생들이 돌아오고 그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학교가 아닌 ‘마을’이 있게 되고 마을과 함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일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일상의 주체로 학교의 일원이기도 하며 지역의 일원이기도 한, 그리고 그 지역의 활동가이기도 한 구조로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독특한 종교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어른들도 있죠. 홍순명 선생님, 정승관 선생님 등. 아마 이런 것들이 60년을 밀고 나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우공동체랍시고 모양은 내서 간판은 냈지만, 지역에 뿌리를 내린 것은 아직 부족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학교 졸업하는 아이들, 1기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시도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학교 선생님들과 동일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꿈꿨던 학교에서의 여러 정신, 삶의 정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점점 **퇴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3년, 5년이 지나게 되면 **양 극단의 갈림길**이 저희 앞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자치, 자율. 우리의 최대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 자율이 우리의 족쇄이기도 합니다. 간디에서 보여준 모습이기도 한데요. 열심히 하고 뭔가 하려는 입장에서 내 마음의 착한 싸이 하는 말을 귀 기울이려는 입장에서는 자치, 자율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영부영 하려면, 껍껍이 말을 들으려면 이우학교처럼 편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극화**가 진행된다면 열심히 하던 사람은 미치고 환장합니다. 학교를 떠나거나 후송(?)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악순환**으로 드러나는 거죠. 저는 이대로 3년, 5년 가면 이우학교가 악순환의 길로 빠져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은 무엇일까? 그런 점에서 새로운 변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다시 처음 고민했던 우리 마음속의 착한 싸이 어디서 나올까?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10년의 과제는?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각각을 하나하나 대책을 세워서 열심히 하면 될까? **지금의 방식대로 열심히 하면 될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일을 대충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바뀌었지만, 아이들도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아예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엔미래보고서 2045〉는 SF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옴직한 어두운 일들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2039년 로봇, 자동화, 3D프린터의 대중화로 서구에서 제조업이 소멸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2041년, 지구 평균 온도는 2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사막화, 홍수, 태풍으로 몸살을 앓고 아프리카는 인구의 4분이 3이 굶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45년,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 특이점이 옵니다. 이 시점이 오면 인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고, 최근 150개국이 기후 변화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파리협약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류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학교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까? 요지부동일 것 같던 우리나라의 학교들도 혁신학교, 자율학기제 등으로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노력만으로 우리는 자라나는 새싹들의 앞날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학교 평가하면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형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지금 이우학교에만 ‘이상한’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가 일반적인 것이란 것.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방식으로 해왔는데 3년 지나보니 변화가 약하다는 것.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적극적인 대책이 없었던 것. 이런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깊은 분석과 종합적이고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롭게 시사 받은 곳이 있습니다. 성미산 학교에서 2년 전부터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도시에 대안학교라는 형태로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찼한 문제들이 드러났겠죠. 더 어려운 아이들이 왔을 테고요. 이대로 하면 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평창에다가 **농사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이 들어오면 중학교 1년 동안 거기 가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1년 내내! 그리고 돌아와서 2학년 3학년을 다니는 거죠. 2년을 해보았고, 제가 그에 대한 자료도 봤습니다. 뭐 중학교 아이들을 ‘반인반수’ 뭐 이렇게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만큼 중학교 아이들이 참 어려운데 농사학교를 다녀온 아이들이 그 이전의 아이들보다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들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학부모들 뿐 아니라 5,6학년 아이들이 농사학교 가는 걸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학부모들이 완전 좋아한답니다. 뭐 부모입장에서선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요? 갔다 와서 요리도 하고 챙겨주고.. 물론 돌아와서 한 달 만에 생활은 다시 예전으로 약간 회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이우학교에서 여러 활동들을 아이들한테 제공했잖아요. 특히 이우학교 새로 시작한다 해서 뭐 이게 좋다 요게 좋다 이런 제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아이들한테 제공했죠.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그걸 감당하느라 애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진 다 빼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아이들의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뭐 그런 점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그게 정말 아이들을 자극하고 깨어나게 하는 걸 **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아마 그래서 1년 농사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자율학기제 이런 이야기들을 소극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1년 정도 어디 **분교 세워서** 거기에 아이들을 한번 뺑이(?)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저도 교장 8년 하면서 엉덩이가 무거워지고 주둥아리로만 자꾸 떠드는 것 같아서 백수로 가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교장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엉덩이들이 무거워진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분교에 가서** 몸과 마음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흔드는’ 거죠. 일상성을 깨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가 될 텐데요, 우리가 항상 대안을 이야기하지만 책이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나가도록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아마 예상컨대 우리 학생들이 졸업해서 대학을 가든 어쨌든 2/3는 실업자일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협동조합이나 **새로운 사회적 경제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에듀엔젤랜드’ 이런 거 만들어서... 제 생각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좋은 아이디어, 비전이 없어서 뭔가 판을 벌이지 못하고 돈을 못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밖에서 설립자나 학부모나 지역의 여러 활동가들과 결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바로 교육의 교체가 되고, 활동의 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저 학교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제가 볼 때 좀 심하게 말하자면 ‘깨작깨작’하는 활동은.. 그렇다고 아이들이 바뀌지도 않고 그것이 위력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아이들 좋은 대학 가려고 발버둥 칠 바에 차라리 새로운 전망 속에서 나름의 준비를 하고, 그걸 위해서 필요하면 그것과 관련된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올라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뭘 많이 해서 챙겨줄 것이 아니라 ‘불씨’를 넘겨주어야 하잖아요.

그걸 주체 문제로 보자면, 과연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할 불씨를 갖고 있는지? 그 불씨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 그 점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고민할 때 지금까지 반복했고, 이미 익숙해져버린 내 교과과정의 문제로 봐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이우학교가 꿈꾸던 세상에 대한 걸 어떻게 **주어진 교육과정의 틀 내에서 불씨로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 마음속의 불씨로 만들고...** 내 불씨가 없으면 아이들한테 불씨를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업자가 많으면 대책은 무엇이나? 세계적으로 보면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다음 10년 생각하면 국제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취업도 국제적으로, 대학도 국제적으로. 아이비리그만 있는 게 아니라 필리핀, 독일, 아시아 전역에 좋은 대학도 많고, 취직할 곳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해통 갔다 와서 꿈꾸는 게 분명 많은데 정작 우리들은 대학 입시에 맞춰서 챙겨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떤 비전을 줄 것인가? 그럼 비전을 주는 것을 어떻게 준비시켜 줄 것인가? 전 아이들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학부모나 교사들이나 **국제단위의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가 구성만 된다면 전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치의 위기?

지금은 괜찮지만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 학교의 최고 장점이었던 자치가 위기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뭐 이야기 안 해도 다 알 것 같고 마지막 이야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이우학교 자체 평가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9월까지 학교에서 ‘이우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제출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몇 이런 걸 좀 잘하고 책임지는 것 같은 분들이 모여서 안을 만들고, 토론 한 번 해보고 ‘좋다!’ 해서 안이 나온다면, 저는 ‘현재의 지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하나하나한 비전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몇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속의 어느 것에 귀 기울이고, 무엇을 행동하고 판단할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런 걸 바꾸는 힘이 나오지 않은 채로 **형식적인 민주주의와 형식적인 자치**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실현했었던 그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연수의 문제가 아니라 올 여름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새로운 힘으로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70%의 타협, 30%의 양보의 지혜

그런데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이우학교가 2003년에 개교해서 초기 3년 동안의 갖가지 과정을 돌아보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가장 큰 책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왜 그랬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다가 드디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뭔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간 거죠.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바라보니까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이우학교에 모이는 분들이 대개 ‘뜻’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확신이 강하고 그런 만큼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은 거의 ‘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교육운동의 환경이 늘 실현시키기 어려운 조건이었던 만큼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밀고나가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점들을 늘 다들 어려워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영향들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돌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된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분란만 많고, 늘 시끄럽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는 늘어지는데 결국에 중간에 썩긴(?) 많은 사람들이 진이 빠져가지고 이런 거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멀어져가고. 그래서 “아 아무렇게나 해라”라고 중국에는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가 되는 것을 어렵게 한 것 같아요.

제가 교장 떠나고 나서 좀 깨달아서 다른 혁신학교들 돌아다니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100이라면 한 70%만 하면 된다. 그래서 30%를 여유를 두고 양보를 하자.” 이게 굉장히 위력적인 이유는 우선 나 자신한테 여유가 생깁니다. 뭐 표정이나...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할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의 이야기가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야기가 나오면 반박할 생각만 떠올리고 있었는데 30% 정도 융통성을 두기로 마음먹으니깐 남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이 30%를 양보하지 않으려 하면 당사자도 힘들지만 그걸 지켜보는 옆에 사람들은 아주 미칩니다(?) 이우학교 내부에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차이는 크게 보면 굉장히 작은 차이**입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요. 그건 조정 가능할 수밖에 없는 너무 뻗은 차이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인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그 차이가 우리끼리 너무 오래 있다 보니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견이 있었던 관계가 일반학교처럼 한 5년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10년 같이 있다 보니 서로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차이 별 것 아닙니다. 그 차이를 확대해석 하고 있는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고, 일상적으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푸는. 이 30%를 **융통성** 있게 풀어놓는 지혜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 제 생각에 교장선생님보다는 **교감선생님이나 팀장 선생님**이 많이 이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은데요. 누구보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이 30%를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선생님들도 30%를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지혜가 소위 민주주의의 과잉, 민주주의의 피로감을 극복하게 하는 작은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별 것 아닌 이야기 같지만,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예전에 방문했던 여러 학교에서 다시 이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70%’만 이야기하다보면 막 싸우다가 정리가 된답니다. 이게 위력이 있다는 반증이겠죠? 여러분들도 ‘70%’의 깊은 뜻을 잘 새겨보길 바랍니다.

모든 교사가 훌륭하면 안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우학교 있었을 때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정말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진작 알아야 됐는데. 학교의 모든 선생님이 훌륭하면 아이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악당이 필요**합니다. 개판치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못 보는 제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제를 대처하려고 힘을 너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이 유지가 돼요.

분위기가 좀... 어렵죠. 차라리 그냥 그런 거 신경 끄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봉창 뚫고, 뭐 이런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가 '독주'하게 돼 있어요. 독주를 하다보면 검증하는 필터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짜증나게 하는 선생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선생님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니깐요. 이렇게 우리가 악당 역할 잘 좀 하시도록 **내버려두면** 2,3년 안에 그 분이 악당 역할을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맞춰서 새로운 악당을 스카웃(?)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10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착한 짝을 자극해 보자.

처음 시작할 때의 교육적 열정으로 새로운 시대의 과제와 만나자!〉



위기청소년(학생)과의 만남과 성장

박 현 동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대표



위기청소년(학생)과의 만남과 성장



박 현 동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대표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강 사 소 개

박 현 동

- 現, 의정부시청소년쉼터 운영법인 대표
- 現,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現, 청소년사역자협의회 부회장
- 現, 신한대학교 강사
- 現,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강사



1. 위기청소년(학생)이란?

1. 위기청소년(학생)이란?

『McWhirter의 5가지 위기 수준 구분』

- ① 최저위기 :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고, 학교나 가족적 환경, 사회관계가 긍정적이며 심리적 환경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 ② 저위기 : 최저위기에 비해 약간은 부족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고, 약간은 부족한 가정, 학교, 사회관계를 갖고 있으며 몇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
- ③ 고위기 : 부정적인 가족, 학교, 사회관계하에 스트레스 요인이 많으며, 부정적인 태도나 감정, 기술 부족 등 개인적 위기징후로 발전되는 단계이다.
- ④ 위기행동입문 : 청소년이 어느 한 가지 유형의 문제행동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 ⑤ 위기행동(At Risk category activity) : 입문수준의 행동에서 다른 범주의 위기 행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다.
이들은 상기 위기수준이 연속선상에 있는 단계라고 정의하면서 약물남용, 학업중단, 위험한 성행동, 비행, 총기사용 등과 같은 범주의 행동을 가장 위험한 위기수준의 예로 들었다.

위기청소년(학생)이란?

『이희복교수의 14가지 문제영역 구분』

- ① **가출청소년** : 본인 또는 외부에 의하여 가정을 이탈하거나 이혼·별거·학대·폭력 등 가정문제로 인하여 적절한 수준의 양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② **학업중단청소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③ **학교 폭력 피해·가해 청소년** : 재학 중 청소년으로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는 상해·폭행 등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청소년
- ④ **집단따돌림 피해·가해 청소년** : 집단따돌림의 가해 및 피해를 경험했거나, 집단따돌림 수준이 아니라도 사회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외톨이 증상 등이 나타나는 청소년
- ⑤ **일탈행동 청소년** : 청소년 성일탈(성매매·성폭력 등), 유해악물(음주, 흡연, 본드, 가스 등), 도덕, 유해업소 출입 등의 일탈행동을 저지른 청소년 및 비행위험이 있는 청소년
- ⑥ **우울 자살위험 청소년** : 심한 우울정서로 인해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자살 위험이 있는 청소년
- ⑦ **비행·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 비행으로 인하여 경찰 또는 검찰의 선도(보호관찰 등)를 받고 있거나 소년원법에 의한 소년원, 행형법에 의한 교정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청소년

위기청소년(학생)이란?

『이희복교수의 14가지 문제영역 구분』

- ⑧ **사이버 중독 청소년** : 게임, 인터넷 중독 등 사이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
- ⑨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 :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등의 사회부적응 청소년
- ⑩ **저소득계층 : 비인가 복지시설 및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곤란하거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등을 퇴소하여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청소년 또는 미인가 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
- ⑪ **탈북청소년** :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적용을 종료하여 자활이 어려운 청소년
- ⑫ **교정시설 재소자의 자녀** : 교정시설에 그 부모가 수감됨으로써 가정에서 적절한 양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
- ⑬ **다문화청소년** :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 : 부모 중 일방 또는 양친이 외국인이고 국적, 피부색,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적절한 수준의 양호를 받지 못하는 한국 국적의 청소년
- ⑭ **대안학교 재학 청소년** :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여 대안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비정규 교육기관(공부방 등)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위기 청소년(학생)의 심리적 특징과 효과적인 대처

2. 위기 청소년(학생)의 심리적 특징과 효과적인 대처

심리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은 위기를 만났을 때, 약간의 도움만 있어도 금방 회복된다.

즉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 높은 것이다.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근육과 같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의 경우 당면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면 된다.

그러나 열악한 가정과 환경 속에서 비뚤어진 성격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양식을 갖게 된 위기 청소년들이 문제이다.

위기 청소년(학생)의 기본 대처방법

청소년(학생)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말하지 말라

청소년들(학생)이 나와 같지 않아도 정상이라는 생각

내가 경험한 세계 이면에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위기 청소년(학생)의 특징과 대처방법

방어기제의 발달

- 면담초기 그들의 경계심을 풀어주어야 한다
- 투사적동일시를 포기하고 낙인 찍힌대로 행동-낙인효과의 부적용

감정표현의 미숙함

- 메타감정을 파악하고 공감해주어야한다

스트레스에 약함

- 인정자극 : Stroke를 충분히해주어야한다

자존감이 낮음

-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도록 돕는다

대리가족을 형성

- "Key Person"이 되어주어야 한다

위기 청소년(학생) 이해를 통한 접근방법 찾기

태어나서 아동기때에는
누구나 사랑을 받아야
하는가?

**부모님의
사랑**

친구

아동기때 두 번째
의미적 존재는?

**접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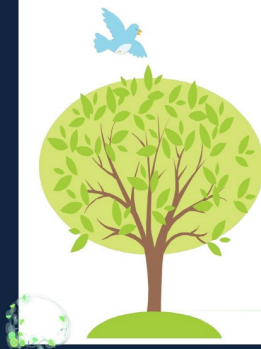
세번째 중요한 의미적
존재

**배우자
(이성)**

자녀

네번째 중요한 의미적
존재

Thank You





둘째날 8.9(화)

- 위기학생의 심리와 정신건강
지 구 덕 한서중앙병원 원장
- 신경정신과적 이해를 통한 대안교육과 위기학생 이야기
- 성모마음행복학교의 치유이야기 -
이 정 국 성모마음행복학교 교장
- 학습동기 향상을 통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최 재 근 가온누리학교 교장
- 제2외국어 교육을 통한 동기회복 사례
고 성 혜 청소년희망학교 교장
- 창의적 체험학습을 통한 진로탐색
박 은 혜 돈보스코학교 교사
- 학교를 넘어선 학교
- L.T.I. 프로젝트 -
하 태 종 태봉고등학교 교사



위기학생의 심리와 정신건강

지 구 덕

한서중앙병원 원장



위기학생의 심리와 정신건강

지 구 덕

한서중앙병원 원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여러분의 청소년 시기는 어떠셨나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고,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적인 박탈감, 와해된 가정, 마을 공동체의 부재 등으로 어디하나 마음 둘 때가 없습니다. 수많은 SNS 친구들이 있지만 공허할 뿐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거기서도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소외를 느낍니다.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스마트폰 같은 첨단 기기들이 청소년 비행에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 생각해봐도 그때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음과 정신적 문제들에 대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 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 소개하고,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4가지의 질환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반항 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ODD)

1) 정의

반항 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ODD)는 교육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누군가에게 거부감·적대감을 나타내거나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양상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또 그러한 행동이 사회적·학업 성취에 큰 지장을 주며 같은 또래에 비해 문제 행동의 빈도가 더 높은 증상을 얘기한다. 적대적인 반항성 장애 또는 반항성 장애라고도 한다.

2) 특징

“반항 장애는 반항적이고, 불순종적이며 도전적인 행동을 보이고 고집이 세며 거친 행동을 보인다. 권위적인 사람을 거부하며 적대적인 행동을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규범을 위반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 -김청송, 2002

또한 DSM-IV에서는 '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 장애' 범주에 반항 장애를 ADHD, 품행 장애와 함께 묶여 놓았다. 이들 장애 간에 유사성이 있는데, DSM-IV는 반항 장애가 아동기에 보이는 품행 장애의 전 징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진단을 함께 받을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품행 장애와 반항 장애를 동시에 보이는 아동이 있다면 품행 장애 진단만 내려지게 된다.

반항 장애가 품행 장애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항 장애 아동의 25%가 품행 장애와 연관된 보다 심각한 행동 양식상의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ADHD 로 진단된 아동 중 35~70%는 반항 장애로 발전하고 30~50%는 품행 장애로 발전한다. 이런 장애들이 동시에 발생 할 경우 ADHD는 다른 장애보다 먼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3) 원인

원인에는 생물학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1) 생물학적 원인

- ㉠ 부모 가운데 한 쪽 부모가 반항 장애 또는 기분 장애, 품행 장애, ADHD, 반사회적 성격 장애, 또는 물질 관련 장애를 겪었던 경험이 있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장애 발생률이 높다.

(2) 환경적인 원인

- ㉡ 빈곤 및 가정불화가 있는 가정의 자녀의 경우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반항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 부모의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로 인해 아동의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아동의 부적응적인 학교생활로 인한 학업 실패 및 사회적 고립을 경험함으로써 반항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생물학적 원인, 환경적 원인 어느 한 가지의 원인이 장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그 밖에도 기분 장애, 불안 장애로 인한 반항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4) DSM-IV의 반항 장애 진단기준

DSM-IV가 정의하는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거부적, 적대적, 그리고 반항적인 행동 양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다음 중 적어도 4가지(또는 그 이상)가 존재한다.

- ㉓ 흔히 버럭 화를 낸다
- ㉔ 흔히 어른과 말다툼을 한다
- ㉕ 흔히 어른의 요구에 순응하거나 규칙에 따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한다
- ㉖ 흔히 고의적으로 타인을 귀찮게 한다
- ㉗ 흔히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 ㉘ 흔히 타인에 의해 기분이 상하거나 쉽게 신경질을 낸다

--> 권위 상에 대한 문제가 큼. **또래 집단 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개인의 문제로만 다룰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역기능 적인 가정(부모의 불화, 알코올 중독, 폭력, 경제적 어려움 등)

우리의 역할은? 그 범위는?

--> 반항장애에서 품행장애로의 발전을 막아야 한다.

2. 품행 장애(conduct disorder)

1) 정의

품행 장애(conduct disorder)는 반사회적, 공격적, 도전적 행위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하여 사회 학업 작업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를 의미한다.

2) 특징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품행장애의 주된 증상으로 비행, 공격성이 동반된다. 가족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나타난다. 심리적 관점으로는 품행장애로 보지만, 사회적으로는 일탈 행동(misbehavior, deviant behavior), 법률적으로는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에 해당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4세 ~ 20세에서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범죄행위, 12세 ~ 14세 촉법행위,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우범행위로 규정한다. 품행장애는 1950년 대에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으로 소아기에 나타나는 행동장애로써 간주되었고, 1990년 대에 와서야 품행장애(conduct disorde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품행장애는 남자에게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청소년기의 여아에게는 성적일탈이 두드러지며 남아는 폭력적 성향이 두드러진다. 주로 청소년 초기에 처음 발현된다. 소아기(10세 이전)에 발병되면 잘 낫지 않으며 청소년기에 발병하면 나이가 들어서 반사회적 행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3) 진단 기준

품행장애의 진단기준에는 엄격한 진단이 필요하며 일회성일 경우는 진단할 수 없다. 평가시 언어표현력의 부족이나 환자의 적대적 태도 등으로 인해 면담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 시 학교나 가정에서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보충해야한다.

A.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나이에 맞는 사회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는, 지속적인고 반복적인 행동 양상으로서, 다음 항목 가운데 3개 이상 항목이 지난 12개월 동안 있어 왔고, 적어도 1개 항목이 지난 6개월 동안 있어 왔다.

(1)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 ㉠ 흔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한다.
- ㉡ 흔히 육체적인 싸움을 도발한다.
- ㉢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다(예: 곤봉, 벽돌, 깨진 병, 칼 또는 총).
- ㉣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 ㉤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 ㉥ 피해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도둑질을 한다(예: 노상 강도, 날치기, 강탈, 무장 강도).
- ㉦ 다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다.

(2) 재산의 파괴

- ㉧ 심각한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로 일부러 불을 지른다.
- ㉨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일부러 파괴한다(방화는 제외).
- ㉩ 다른 사람의 집, 건물, 차를 파괴한다.

(3) 사기 또는 도둑질

- ㉪ 물건이나 호감을 얻기 위해, 또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흔히 한다(예: 다른 사람을 속인다).
- ㉫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중품을 훔친다(예: 파괴와 침입이 없는 도둑질, 문서 위조).

(4) 심각한 규칙 위반

- ㉞ 13세 이전에 부모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 ㉟ 친부모 또는 양부모와 같이 사는 동안 적어도 2번 가출한다(또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1번의 가출).
- ㊱ 13세 이전에 시작되는 무단결석

B.행동의 장애가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

C.18세 이상일 경우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1) 유형

- ㉞ 소아기 발병형 : 10세 이전에品行장애 특유의 진단 기준 가운데 적어도 1가지가 발생한 경우
- ㉟ 청소년기 발병형: 10세 이전에는品行장애의 어떠한 진단 기준도 충족시키지 않는다.

(2) 심각도

- ㉞ 가벼운 정도: 진단을 내리기 위해 요구되는 정도를 초과하여 나타나는 문제가 매우 적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단지 가벼운 해를 끼친다.(예: 거짓말, 무단결석, 허락 없이 밤늦게 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
- ㉟ 중간 정도:品行 문제의 수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가벼운 정도와 심한 정도의 중간이다.(예: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둑질하기, 기물 파괴하기)
- ㊱ 심한 정도: 진단을 내리기 위해 요구되는 정도를 초과하여 나타나는品行 문제가 많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예: 성적 강요, 신체적 잔혹함, 무기 사용, 피해자와 대면한 상황에서 도둑질, 파괴와 침입)

4) 원인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된다. 유전, 신경생물학적, 사회인지적, 가족환경적, 사회적인 요인 등이 있다. 유전적 요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알콜중독 등의 질환을 가진 부모에게서 유전되는 경우로 유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가족환경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생물학적 요인은 세로토닌 이상이나 성호르몬 이상, 전두엽 활성화 차이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공격적인 경향의品行장애에서 이 요인이 두드러진다. 사회인지적인 요인은 인지적인 결함이나 인지적인 왜곡인데, 이 부분은 심리치료를 통해 교정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가족환경적 요인은 이혼이나 재혼, 양육자의 변화 등의 가족구조 변화와 가족내 스트레스, 부모 범죄의 성향과 부모의 정신병리 등이다. 사회적으로는 이웃과 학교, 대중매체의 영향이 요인이 될 수 있다.

5) 치료 및 예방

치료는 의학적인 치료(약물치료,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리나 가족교육, 사회와 학교에서의 협조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도 매우 다양하다. 또한 조기발병일수록 경과가 좋지 않고 성인기의 인격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방 프로그램이 강조된다. 증세가 가벼운 경우에는 진로지도를 통해 적응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소아기에 발병하게 되면 후에 반사회성 인격장애나 물질관련장애로 바뀔 수 있어 경과가 좋지 않다. 또한 다른 장애(기분장애, 불안장애, 신체형장애, 물질관련장애) 등과 같이 나타난다면 경과가 좋지 않고 신체적으로 위험이 있다. 치료는 이러한 경과 상태나 환경적 요소, 발달력, 가족역사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처벌성 훈육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기발병의 경우는 10세 정도까지 차도가 없으면 치유 확률이 거의 없다. 또한 집단치료는 증상악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약물치료는 강조되는 경향에 따라 항우울제, 리튬, 항경련제, 베타차단제, 각성제, 항정신병약 등을 투여한다. 심리치료는 인지행동치료와 행동치료가 사회기술훈련이나 행동개선에 효과가 있다. 또한 가족치료가 병행되기도 하고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이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집단치료는 잘 하지 않지만 입원치료는 집단치료가 허용된다.

품행장애는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 부모나 가족환경, 학교, 사회환경 등의 위험인자를 파악하고 회복인자의 극대화를 파악해야한다. 그리고 예방프로그램의 활용도 필요하다.

감당하기 힘든 느낌을 주고, 미운 감정, 분노를 유발하기 쉽다.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교사직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품행장애를 앓고 있는 청소년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

교사의 무능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잘 볼 수 있어야 함. 교사가 살아야 학생도 산다. 보호자가 먼저..

3.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줄여서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는 주의가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소아청소년기의 정신과적 장애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도 한다.

1970년대까지 소아기에 발병해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구에 의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기에 발견하면 성인기까지의 증상지속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이 장애는 남자에게서 많이 발생된다. 또한 어릴 때 많이 발생하나, 성장하면서 많이 줄어들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많은 편이다.

1) 원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기질적 요인, 임신기와 출생 시의 요인, 신경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이 거론된다. 이 원인들의 한 가지가 아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질환의 유전적 경향은 확인되었지만 공격적인 행동은 사회경제적 상태, 가족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또한 환자의 부모에게서 과잉행동, 우울증, 알콜중독 및 의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 질환의 유전적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의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출산 중 혹은 출산 후에 산모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어린 나이의 임신, 임신중독증, 난산일 때 태아에게 뇌손상이 나타나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신경해부학적으로는 전두엽의 이상, 신경생화학적으로는 중추 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을 원인이라고 추측한다. 신경생물학적으로는 전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 시상(thalamus), 도파민 중피질 돌기(dopaminergic mesocortical projection)의 기능에 이상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뇌염에 의한 신경계의 손상이나 납 중독, 알코올 중독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2) 증상

3세 이전에 발병하지만 정규교육을 받기 전에는 알기 어렵고, 그저 산만한 편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가 되어야 증세가 호전을 보이지만 성인이 되어도 증세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과品行장애, 학습장애, 언어장애 등과 함께 나타나기 쉽다.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증상의 특징이다. 감정의 변화가 크고 기억력의 저하 증세가 보인다. 소근육 운동 능력이 떨어지며 학습능력저하가 나타나 학습장애가 생긴다.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언어능력 역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아기 때는

예민하고 환경변화나 자극에 약하며 잠들기가 어렵고 많이 우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정규교육을 받기 시작한 후부터는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증세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행동의 예측이 어렵고, 분노조절이 어렵다. 또한 자극에 약하기 때문에 참견을 잘하고 집중력이 부족해 수업시간에 앉아있지 못한다. 이 장애를 가진 아동의 75%가 지속적으로 적대감, 분노, 공격성, 반항 등의 행동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학교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이러한 아동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고 전달하면 반사회적 행동과 자기 비하 및 낮은 자존감을 보이게 되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 장애는 뇌의 구조적 영향 및 생득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구조적으로 주의 집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문에 ADHD인 아동은 학습에 문제를 보이고, 특히 주의력을 요하는 과제, 예를 들어 산수에서 수행능력의 저하를 보인다. 이와 같이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은 예를 들어 같은 수학 과제 내에서 문제를 보일 수 있다. 더 고 난이도의 문제인 확률과 통계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는 잘 풀 수 있더라도, 난이도는 더 낮은 수준이지만 순간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산수 문제나 통합적 집중력을 요하는 긴 문장 문제에는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또, 한 곳에 오래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해 수업시간에 문제행동을 보이고, 다른 아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ADHD인 아동이라고 해서 항상 주의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관심을 보이는 과제에 대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을 보이기도 한다.

ADHD 아동의 증상은 영아기 때부터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젖을 잘 빨지 못하거나, 먹는 동안 칭얼거리고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서 먹여야 하고, 잠을 아주 적게 자거나 자더라도 자주 깨며, 때를 많이 쓰고 투정을 부리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과도하게 손가락을 빨거나 머리를 박고 몸을 앞뒤로 흔드는 행동을 하는 경우 ADHD의 전조를 의심해 볼 수 있다.

3) 진단기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A. (1) 또는 (2) 가운데 1가지 :

(1) **부주의**에 관한 다음 증상 가운데 6가지 이상 증상이 6개월 동안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정도로 지속된다:

〈부주의〉

- ㉠ 흔히 세부적인 면에서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
- ㉡ 흔히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없다.
- ㉢ 흔히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 흔히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 잡일, 작업장에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반항적 행동이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님).
- ㉤ 흔히 과업과 활동을 체계화하지 못한다.
- ㉥ 흔히 지속적인 정신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학업 또는 숙제 같은)에 참여하기를 피하고, 싫어하고, 저항한다.
- ㉦ 흔히 활동하거나 숙제하는데 필요한 물건 들(예: 장난감, 학습 과제, 연필, 책, 또는 도구)을 잃어버린다.
- ㉧ 흔히 외부의 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진다.
- ㉨ 흔히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린다.

(2) **과잉행동 - 충동**에 관한 다음 증상 가운데 6가지 이상 증상이 6개월 동안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정도로 지속된다:

〈과잉행동〉

- ㉠ 흔히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다리를 안절부절 못한다.
- ㉡ 흔히 앉아 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다.
- ㉢ 흔히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청소년 또는 성인에서는 주관적인 좌불안석으로 제한될 수 있다).
- ㉣ 흔히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 ㉤ 흔히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자동차(무엇인가)에 쫓기는 것처럼 행동한다.
- ㉥ 흔히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을 한다.

〈충동성〉

- ㉠ 흔히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 ㉡ 흔히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 ㉢ 흔히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한다(예: 대화나 게임에 참견한다).

- B. 장애를 일으키는 과잉행동-충동 또는 부주의 증상이 7세 이전에 있었다.
- C. 증상으로 인한 장애가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장면에서 존재한다(예: 학교[또는 작업장, 가정에서]).
- D.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다.
- E. 증상이 광범위성 발달장애, 조현증, 또는 기타 정신증적 장애의 경과 중에만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정신장애(예: 기분장애, 불안장애, 해리성 장애, 또는 인격장애)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4) 발생 비율

미국 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의 통계에서는 평균 3~8%의 비율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1994년에 대한민국 서울 및 대전 지역에서의 역학조사에서도 7.6%의 발생 비율로 나타났다.

2007년 4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이 펴낸 '학교보건연보'의 통계에서는 학생들의 전체 정신장애 진단중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로 진단된 학생의 비율이 전체 2,672건 중 354건(13.25%)로 집계되었다. 남학생의 정신장애 중 가장 많은 비중(18.61%)을 차지하였으며, 고등학생의 정신장애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9.52%)을 차지하였다.

5) 치료

이 질환은 장기간 지속되며 완치되기 어렵다. 약물치료나 심리적 치료, 규칙적인 보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는 무리가 없지만 완치는 어렵다. 특히 충동성이나 감정의 동요가 심한 경우와, 정신적인 장애를 동반한 경우, 인식능력 저하, 약물남용, 도덕감 상실, 재발된 경우에는 더 어렵다. 이 질환의 치료는 반드시 가족과 학교와의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며 학습태도, 가족과 교우관계, 생활태도나 감정 등을 관찰하고 행동적으로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치료는 약물치료와 정신사회학적 치료, 보조치료, 대체요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약물치료에 이용되는 약물로는 1차 선택 약물인 중추신경 자극제(central nervous system stimulants), 항우울제 등이 있다. 약물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신사회학적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부모와 교사, 친구들과 함께 가정과 교실 등의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실시한다.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의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고 행동요법을 통해 적절한 행동상태로의 발달을 돕는다. 또한 학습능력 적응훈련과 사회적적응기술 훈련도 함께 이루어진다.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는 **약물치료가 효과적**이다. 80% 정도가 분명한 호전을 보이는데, 집중력, 기억력, 및 학습능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또 수행능력과 더불어 주의 산만함, 과잉 활동과 충동성은 감소되고, 부모님과 선생님에게도 잘 따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어 어느 정도 행동 문제의 완화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약물로 문제증상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어 도움이 되지만, 피곤이나 무기력함 등 약물의 역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을 섭취하기 전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부모 또한 아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아이를 도와주실 수 있게 하는 부모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능력 부족이나, 타인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등 다른 심리적 문제와도 수반되기 때문에 아동의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행동 치료, 기초적인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치료, 놀이치료, 사회성 그룹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아이의 필요에 맞게 병행되는 것이 좋다.

약물 치료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함. 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없는지...아는 만큼 보인다.

정서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할 수 있게

*ADHD --> 대인관계 문제, 정서문제 --> 우울증, 반항장애 -->品行장애
약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4. 소아 청소년 우울증

소아 및 청소년기 기분장애는 DSM-IV 진단체계에서는 성인의 우울증과 같다고 본다. 약간 차이가 있다고는 보는데, 그 특징은 성인 우울증과는 달리 명확한 우울감이나 생리적 증상보다 다른 형태로 **위장**되어 가면 우울(masked depression)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우울은 행동화, 과다활동, 파괴성, 공격성 비행, 친구관계 악화, 무단결석, 학교거절증, 가출, 성적저하, 신체증상, 분노발작, 사고호발경향, 공포증, 방화 등으로 위장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소아들은 사회적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크며, 환경이 좋아지면 우울증세도 호전하는 경우가 많다.

1) 임상 양상

대체로 서서히 발생되며, 수년간 과다활동, 이별불안장애 또는 간헐적인 우울증상을 보인다. 기분장애가 어린 나이에 발현되면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청소년들의 태도가 부정적이고 반사회적 행동 및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이 많으므로 적대적 반향장애, 행동장애, 약물남용 또는 의존이 추가되어 진단된다.

소아는 자신의 행동, 정서, 대인관계 등에 대한 신빙성 있는 보고를 하므로 정신과 의사는 슬픈지, 절망적인지, 기분이 나쁜지, 또는 울고 싶은 느낌이 있는지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질문 하도록 한다.

기능적 장애는 학업성취, 친구관계 및 가족관계 등 소아의 정신사회 분야에 지장을 준다. 특히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데 이는 집중력 저하, 절망적 사고, 관심 및 동기부족, 피곤, 졸리움, 우울적 집착 등이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학습장애로 오진되기도 한다.

2) 치료

자살기도가 우려되면 자해충동과 자해행동을 방지해야 하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약물 남용 또는 의존이 공존된 경우도 입원하여 치료한다.

가족 내의 압도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가족 치료를 한다. 우울장애 소아에서의 정신치료는 대체로 인지적 접근을 포함하여 성인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하도록 한다.

항우울제를 통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다.

짜증내는, 비행행동을 보이는 아동 청소년 --> 우울증일 수 있다.

진지하게 접근해야...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면담을 시도, 자살생각,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자해, 지속적인 자살사고(구체적 방법, 시도) 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신경정신과적 이해를 통한 대안교육과 위기학생 이야기

- 성모마음행복학교의 치유이야기 -

이 정 국

성모마음행복학교 교장



성모마음행복학교의 치유이야기

이 정 국

성모마음행복학교 교장 · 성모마음정신과의원 원장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이 필요한 이유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에게 대안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문제를 이해할 때 생각해볼 명제가 있다. ‘평등이 과연 기회의 균등만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육상국가대표와 나에게 100미터 앞의 상품을 가질 기회를 동시에 준다면 공평한 결과?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평등에서 이러한 능력 차이를 고려하여 누구나 ‘비슷한 정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나아간 개념의 평등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심리적, 정서적인 능력도 또한 육체적인 능력처럼 편차가 존재한다. 지적 기능에서 정신지체아와 영재아와 일반아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달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 그들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한다. 이전까지 우리는 이러한 아이들을 구분하지 못했고 같은 기준으로 그들을 대하며 그들을 훈육하고 안 되면 벌하고 “문제학생”으로 규정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맞는 교육 방식과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면 그들은 문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 물론 모든 아이들에게 각각에 맞는 교육방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그것이 효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보다는 다양한 방식, 다양한 환경의 학업형태가 필요하고 대안학교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 중의 하나일 것이다.

▶ 성모마음행복학교가 등장하게 된 배경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대에 입학했었고 어찌하다보니 중간에 그만두고 의대에 들어오게 되었다. 정신과의사가 되고 성모마음정신과의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시작이 사대여서 인지 학교에, 학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학교에 강의도 많이 가게 되고 아동, 청소년 환자들도 많이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학교 적응이 힘들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보면 중간에 학교에서 탈락하게 되고 그것이 또 그들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다. 증상이 심해 정신과 외래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도 많았다. 증상이 심해서 입원치료를 하면 아이들에게 학업이 중단되는 문제도 컸다. 학교와 치료가 병행되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당연한 귀결이었고, 병원형 대안학교는 그들에게 좀 더 적합한 교육과 치료가 잘 조합된 시스템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

성모마음행복학교는 병원치료와 대안교육이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곳이다. 매일 의사를 보고 모든 아이들이 병원 치료를 받는다. 가벼운 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이들은 외래 치료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성모마음행복학교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다. 병원치료가 꼭 필요하고 학교생활이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곳이다. 필수적인 정규수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업이 치료이거나 치료와 연관되어 있다. 의사의 진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연극치료, 집단상담 등이 심도 깊게 제공된다.

▶ 성모마음행복학교 학생들의 특성(개인, 가정, 학교, 친구)

성모마음행복학교는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이 대상이다. 아주 중증의 청소년 들은 입원해서 치료와 대안 교육을 받는다. 조금 증상이 덜하면 집에서 통학하면서 병원 치료와 대안 교육을 받는다. 진단적으로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品行장애, 충동조절 장애 ADHD 청소년들이 해당된다. 학교와 관련한 문제로 학교 등교 거부, 학업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성적, 교사나 학교 친구들과의 갈등, 학교폭력의 가/피해자, 학교의 징계 경험 등이 있는 아이들이 많다. 가정과 관련한 문제로 부모의 이혼 등 가정 내 문제, 부모의 심리적 문제, 부모와의 갈등 부모에 의한 폭력의 피해자 또는 부모에 대한 폭력 행사, 가출, 집안내 절도 등의 문제를 보인다. 아이 자신의 행동문제로는 음주, 흡연, 규칙위반, 게임에 대한 과몰입, 성적 일탈, 폭력성, 등을 보인다. 또한 아이들은 각각의 질병에 의한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심리적으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은 불신, 권위에 대한 반항심, 낮은 자존감, 충동성, 자신의 미래에 대한 무관심등이다.

▶ 성모마음행복학교의 대안교육 과정, 치유허동

성모마음행복학교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적 치료, 심리적 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여 아이들을 정상화 시키고자 노력한다. 정신과적 치료의 과정에서 부모의 동의는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부모의 심리적 문제가 뚜렷한 경우에는 부모의 심리치료나 정신과적 치료를 같이 진행하기도 한다.

A가 대표적인 경우다.

초등학교때부터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던 A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공부도 못했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했고 수업시간에는 딴 짓을 하다가 지적당하기 일쑤였다. 점차 학교랑은 멀어지고 고학년이 되자 학교를 제대로 가지 않고 혼자서 게임을 하거나 언니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다.

중학생이 되자 엄마와의 갈등은 심해졌고 엄마와 아이가 몸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아이는 나가서 남자애들과 어울리면서 성적인 일탈을 보이기도 하자 엄마의 걱정은 더 심해져 수소문 끝에 행복학교에 오게 되었다.

아이의 잦은 가출, 엄마에 대한 폭행, 장기간의 결석, 충동성, 치료에 대한 비협조등으로 인해 입원치료와 학업을 병행하게 되었다

아이의 심리 검사 결과 경도의 정신지체, 주의력 결핍, 심한 우울증 등이 있었고 때로는 환청과 망상이 동반되기도 했다. 병동과 학교에서도 산만한 행동, 불안, 우울감, 자해 행동 등이 반복되었다. 다른 아이들과 끊임없는 갈등과 때로는 몸싸움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아이의 엄마도 입원한 아이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불면, 감정기복 등의 증상이 보였다. 엄마에게도 치료를 권했으나 엄마는 자신은 괜찮다고 거절하였다. 아이는 병동에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 집단 상담을 진행하면서 차츰 안정되어 갔다. 여전히 소소한 산만행동, 또래들과의 갈등, 감정기복이 있었으나 처음보다는 많이 안정되어 갔고 아이는 퇴원을 하고 통학형으로 다니기 시작했다. 때때로 늦은 귀가, 이전의 친구들과의 어울림, 엄마와의 갈등과 말싸움 등이 나타났지만 이전보다는 나아진 상태였다.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의 개인 상담시간에 동행했다. 아이의 문제에 대해 같이 상의를 진행했다. 엄마도 처음보다는 안정이 되었으나 아이에 대한 과격한 언사, 분노, 감정기복은 정상범위 밖에 있었다. 다시 치료를 권했고 엄마도 이번에는 동의했다. 엄마의 치료 과정에서 엄마의 어린시절, 불행했던 가정환경, 남편과의 갈등, 가정 폭력, 엄마의 우울감과 자살 사고등을 들을수 있었다. 약물치료와 상담치료가 엄마에게도 진행되었다.

여전히 A는 힘들다. 엄마도 쉽지 않다. 하지만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고 학교에도 다니고 친구도 생겼다. 미래의 직업을 꿈꾼다.

▶ 치유를 위해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이끌어 내는 방법

기본적으로 성모마음행복학교는 병원치료와 결합되어 있다. 치료가 필요한정도의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어야 하고 또 치료에 동의가 되어야 입학할 수 있다.

치료의 필요성이 모호한 경우에는 심층적인 검사와 의사 진료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입학이 된다. 따라서 모든 아이가 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과적 치료에 대해 감추거나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병원형 학교인 성모마음 행복학교가 갖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일반 학교에서는 문제가 있는 학생이 치료를 받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많지만 적어도 성모마음행복학교에서는 치료가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치료 과정에서 부모님이 병원에 오게 되고 병원과 학교가 같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왔다가 학교선생님을 만나는 등 부모와 학교, 병원의 접촉과 연결이 잦은 것도 부모나 학생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행복학교의 부모는 바쁘다. 담임선생님, 사회복지사, 의사, 치료사등과 자주 면담이나 통화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 대안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변화, 원적교 복귀 후의 생활

대안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생기는 우선적인 변화는 일상의 회복이다. 특히 입원치료의 경우 낮밤이 바뀌고 게임 및 스마트 폰에 찌들어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일상이 된 아이들이 제때 자고 제때에 먹고 제때에 학교에 가게 된다. 처음에는 이런 과정도 많이 힘들어 수업시간에 잠만 자던 아이들이 차츰 생활이 정상화된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변화는 관계의 회복이다. 수업에 매일 지각하거나 수업에 집중이 안 되었던 아이들이 다양한 치료 수업과 대안 교육, 심리 치료, 약물치료에 효과를 보이면서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또 교사와의 관계, 또래들과의 관계가 생긴다. 갈등도 많이 생기지만 같이 있으면서 그런 갈등이 잦아들고 우정도 생긴다. 교사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부모와의 갈등, 부모에 대한 증오심이 누그러지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된다. 아이도 부모도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서로에 대해 그리워하고 고마움을 다시 깨닫는 경우가 많다.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교실에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되어 지내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고 사회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학교라는 공간이 우정과 행복의 시간이 아니라 고립과 불안 심지어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아이들이 집단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은 치료와 인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이해이다. 자신의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 자신의 성격에 대해, 주변과의 관계 양상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의 초석이다. 이러한 자각은 또래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엄마의 변화를 보면서, 일기를 쓰는 시간에, 상담 시간에 등등 다양한 시간에 찾아 온다. 물론 이런 자각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자각을 하더라도 행동의 진정한 변화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성모마음 행복학교는 아이들의 자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모마음행복학교를 거쳐간 아이들이 모두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간에 이탈한 아이도 있고 치료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다. 또 원적교에 복귀했다가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가출이나 문제를 일으켜 행복학교에 다시 오는 경우도 있다. 또 원적교 복귀라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1년씩 행복학교에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아이들에게도 병원 치료와 대안 교육이 통합되어 있는 성모마음 행복학교가 마지막 보루였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는 부모님들이 많다. 그래서 더 절실하기도 하고 잘 안되었을 때 느끼는 좌절감이 더 크기도 하다. 그래서 성모마음행복학교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고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학습동기 향상을 통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최 재 근

가온누리학교 교장



대전이 학고다. 세상이 학고다. 내가 바로 중심이다.

가 온 누 리



열린배움네트워크

PART.1 가온누리 기관소개

운영철학

- 씨알= 씨(씨앗) + 알(생명, 영혼, 정신)
- 역사 인식(주인의식, 리더, 주체자, 주인공)

교육목표

- 自立 -> 주인공으로서 자리매김,
- 相生 -> 함께함, 어울림, 소통
- 回復 -> 창조 질서 회복, 자연 치유

3

가온누리 지나온 길

- 2011. 2월 해보라교육문화공동체 부설 가온누리센터 설립
- 2011. 6월 가온누리 청소년 상담센터 업무 개설팀
- 2012. 3월 대전광역시교육청 조건부특별교육 운영
- 2013. 2월 대전청소년인턴십센터 업무개설팀(둔산동)
- 2013. 3월 대전광역시교육청 조건부특별교육 위탁운영
- 2014. 3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 위탁운영(오정동)
- 2014. 12월 도시형 대안학교 '가온누리학교' 설립
- 2015. 3월 부설 '원예치료센터 기다림' 설립운영
- 2016. 2월 대전 유성구 반석동 캠퍼스 이전

4

설립취지와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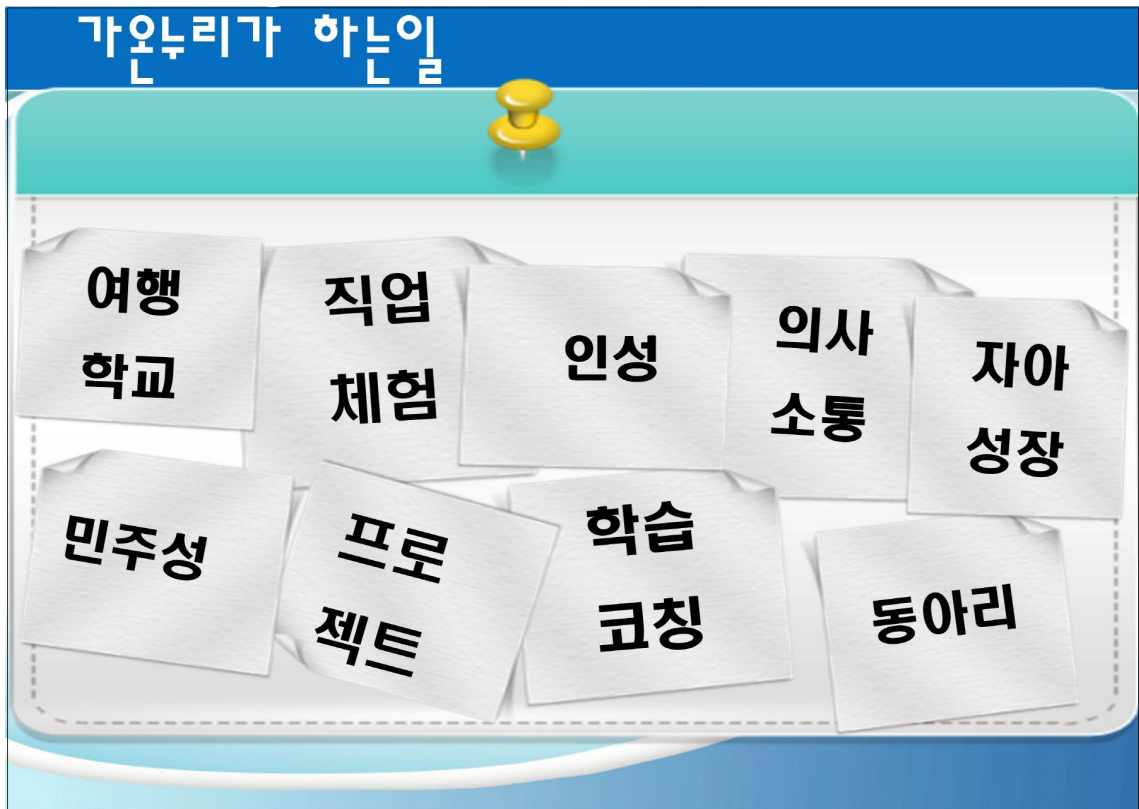
- 학교 가기가 죽기보다 힘들다는 아이들
- 학업 중단학생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
- 현재 공교육의 문제점
(대학입시에 초점, 줄 세우기 시스템으로 인한 낙오자, 과열경쟁, 개성무시, 우물 안 개구리)
- 세상과 소통하는 배움터 필요
- “어둠을 타하기 보다는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낫다.”
- 새로운 형태의 배움 공간 필요
(마음치유 -> 자신감 회복 -> 자기발견 ->자기계발)

5

가온누리특색

- 도시형 대안교육
(대전이 학교다, 세상이 학교다. 내가 바로 중심이다.)
- 개인별 특성화
(진로진학 + 마음치료 + 배움활동)
- 넘나들며 배우기
(학교, 가정,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

6



여행학교

- 길에서 배운다. (로드스쿨)
- 월 1회 국내여행(1일, /1박2일/2박3일)
- 년 1회 해외문화탐방/ 교환학기(중국, 필리핀)
- 자치회의를 통한 사전 준비활동
- 미션수행을 하며 꼼꼼히 경험
- 연계학습(소감문/토론/블로그)



청소년인턴십

입체적인 진로직업탐색활동(학교+현장)

가. 교내활동

- 자격 있는 전문 진로상담 교사에 의한 진로수업
- 상시 진로 및 인턴십 상담(개인별 진로성숙도확인)
- 전문직업인특강(매주)



나. 현장 인턴십

- 길잡이교사(멘토) 제도 (다양한 직업활동을 하는 50인의 길잡이 교사)
- 도제식 수업(2~4주)
- 사전 진로모색, 예비 직업활동

일과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09:30~10:00	아침열기 (독서 & 버추프로젝트, 공통)					
10:00~10:50	주간학습 디자인	생각에 날개를 달자	사고력 수학	창의과학	진로 & 직업 프로젝트 (공통)	
11:00~11:50	실용영어회화	타임머신 (미디어,역사)	중국어/일본어 (선택)	동기향상 집단상담		
12:00~13:00	점심 (자유시간)					
13:00~13:50	자기주도학습 (수능,자격증)	국어/영어/수학 (선택)	감성수업 (예체능,취미,공통)		프로젝트 (개별,공통) / 자기주도학습 (수능,자격증)	문화체험 (공통)
14:00~14:50	화백회의 (의사소통,공통)	자기주도학습 (수능,자격증)	(A반) 장작 조형	(B반) 실용 음악	(C반) 원예 활동	
15:00~15:30	마무리모임 및 정리					
15:30~16:50	자율 선택 수업 (학습코칭, 심리상담, 역사교실, 외국어, 원예, 미술, 음악교실, 컴퓨터교실)					

자율선택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학 습 내 용
1	학습코칭	학습부진 상담 및 코칭, 취약과목 분석 학습동기부여
2	심화학습	(국,영,수,사,과) 취약과목 집중학습
3	심리상담	MBTI, 에니어그램, 미술치료 도형상담, DISC, MMPI, K-WICS
4	역사교실	한국사, 세계사
5	중국어	실생활 회화중심, 나홀로 중국어, 원어민 중국어회화, 방학 중 현지 연수프로그램.
6	영 어	기초 다지기, 여행영어, 영어일기쓰기, 원어민 영어회화
7	원 예	풍란, 석곡 기르기, 분재(기초) 야생화기르기, 플로리스트
8	미 술	조소, 인물뎃생, 크로키, 정물소묘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판화
9	목 공	모형 집 만들기, 의자, 책상 테이블 제작
10	도예교실	식기, 타일, 소품 디자인 등 생활도예
11	음악교실	통기타, 보컬트레이닝, 플루트 오카리나, 피아노등
12	컴퓨터	OA과정/포토 샵/ 홈페이지, 웹 마스터
13	글쓰기·논술	독서, 서평, 신문기사 스크랩
14	한 자	급수 별 자격 과정
15	생활스포츠	배드민턴, 볼링, 농구, 탁구 등

대안교육과정

구분	대안교육 위탁과정	대안교육 일반과정
기간	(3개월~1년)	2년(기본4학기+인턴십)
대상	교육청위탁대상학생	대안교육희망학생
모집	정원 내 수시입학	년2회 (3월, 9월 입학)
학력	소속학교 학적 유지	검정고시
시간	오전9:30~오후15:00	오전 9:30~오후 15:00
학비	기본수업료 면제	교육비(기부금 없음)
식비	교육청 50% 지원	개인별 납부

8

시설 및 위치



사무국

• 대전 서구 둔산동 수정타운 상가 2층



센터/학교

• 대전 유성구 반석동로 53번지 (반석역 인근)



원예센터 기다림

• 충남 공주시 반포면 금벽로 1933



직영농장/농촌체험시설

• 충남 예산군

<재정운영>

- 후원과 기부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재능기부]

- 수익사업[교육프로그램, 농장운영수익금]

- 지 자체 공모및 위탁사업

14

교육성과

최근 4년간 위탁 교육 현황

연도	중 학 생			고 등 학 생			총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2012	·	1	1	27	3	30	31
2013	·	·	·	51	3	54	54
2014	2	4	6	23	23	46	52
2015	5	10	15	29	25	54	69

- 가온누리 대안교육 위탁과정을 수료하고 학교로 복교 학생

15

<부설>원예치료센터 기다림

풍란과 석곡의
식재와 관리

야생화 기르기

생활원에

시골살이 체험
- 텃밭가꾸기

발효음료 만들기

- 대상 : 아동/ 청소년/ 성인/ 일반/ 장애인
- 프로그램/재료 보급
 - 원예작물, 수재화분, 생나무공예재료, 식물 식재도구 및 재료
 - 프로그램 매뉴얼 및 Kit

17



PART.2 학업지원 중점

I. 학습부적응의 이해

부진별 유형

학업 부진 학생 유형



I. 학습부적응의 이해

학습저해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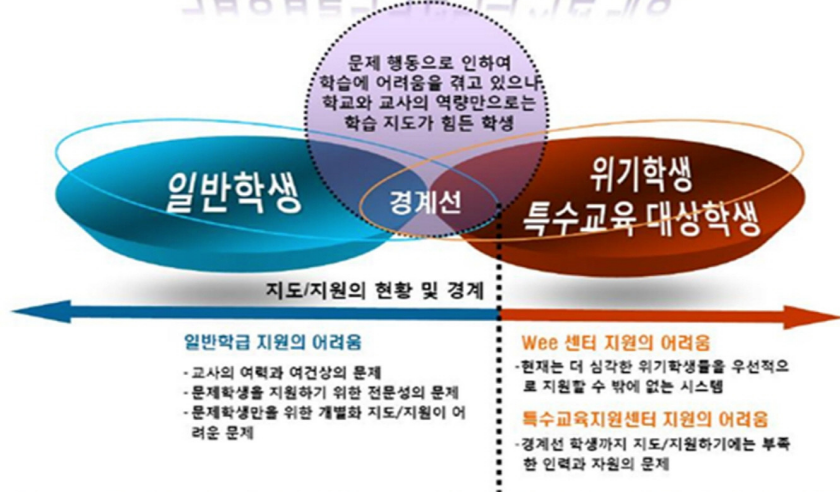
1. 신경-생물학적인 원인
(유전적 소인, 태아 뇌발달 이상, 태내환경)
2. 인지적 결함
(감각/ 지각 능력의 문제, 기억력, 규칙학습능력)
3. 환경적 요인
(가족환경, 부모의 교육수준, 교육방법)

학습 저해요인 진단결과에 기초한 맞춤형 처방과 회복

I. 학습부적응의 이해

적용 대상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지원 대상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가이드

II.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 활용



1) 학습코칭/학습상담

수업(teaching)	코칭(coaching)
특정 교과에의 전문성	다양한 맥락에 적용 가능한 총체적인 조력 기술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서로 다른 지위 관계	공유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형성
조언의 제공	조언의 제공을 회피
교사는 '전문가' 입장에서 해답을 제시	인간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유지
전문 교과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	높은 수준의 정확한 질문 기술과 성찰 기법
교과 관련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	코치가 변화와 발달의 주도권
충고와 지원의 복합적 제공	도전감이 큰 복합적인 지원 제공
특정 교과 관련 지식과 기술에 초점	해결 방안에 초점을 두기 위해 전인적 관점을 취함

학습코칭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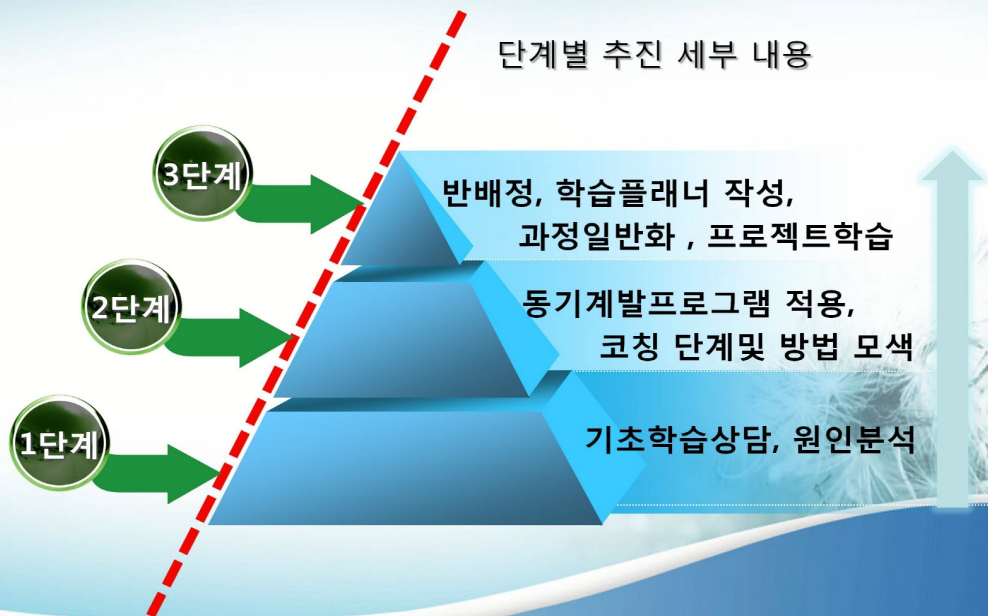
- ◆ **코칭이란**, 코칭을 받는 사람이 앞으로 실천할 행동 과정과 해결
방안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과정이며**, 이런 관계를 맺
는 것이 중요하다(Thomas & Smith, 2004:28) **학습자의 독립성**
- ◆ **학습상담 프로그램** : 자기이해, 자존감, 학습동기, 강점기르기
- ◆ **학습코칭 프로그램** : 시간관리, 읽기/필기/암기 전략, 학습 습관,
공부환경, 학습플래너, 시험전략, 성취경험
- ◆ **학습치료 프로그램** : 행동(ADHD, 주의집중력), 학습장애(읽기,
쓰기,셈하기, 난독증 등)를 치료하기 위한 의학/심리학적 치료

2)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의 열쇠

자기주도학습 발전 단계



가온누리학교 개인별 학습 플래너

1) 일일 학습 플래너

가온누리학교

○○○의 화요일 플래너

날짜	성	찰	A	B	C	D	E
wake up time	:	bed time	:	:	:	:	:
우선순위				좋은 밤			
* * * * *							
check	to do list	check					
☐		☐					
☐		☐					
☐		☐					
☐		☐					
☐		☐					
☐		☐					

Well done is better than well said.
실천이 말보다 낫다.
- 벤자민 프랭클린 -

○○○의 월요일 플래너

날짜 16.03.07 성찰 A B C D E

wake up time 07:10 bed time 22:10

우선순위 좋은 밤

*서극작성 마나기
*수업에 자기
*나눔성 공부
*

check	to do list	check	강의 / 자유
☒	서극작성 마나기	☒	나눔성 공부
☐	슬리퍼 사기	☒	공포의 이해
☐	축구 경기(원격수업)	☐	
☐	바라비바의 비극(영화)	☐	
☒	나눔성 공부	☐	
☐		☐	
☐		☐	

나눔성 공부

Well done is better than well said.
실천이 말보다 낫다.
- 벤자민 프랭클린 -

가온누리학교 개인별 학습 플래너

2) 주간 학습 플래너

가온누리학교

주간 학습 Design

이름 : 6월 4주차

한 주 다짐 :

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6/20)	(6/21)	(6/22)	(6/23)	(6/24)	(6/25)	(6/26)
마음							
design							
수업 1							
수업 2							
맞는 정신과 토식이 있는 시간							
수업 3							
수업 4							
개별							
프로젝트							
문답							
(목,사,금)							
성							
찰							

내가 보낸 한 주는...

가온누리학교

주간 학습 Design

이름 : 구민준 6월 4주차

한 주 다짐 : 의미있게, 행복하게 지내자

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6/20)	(6/21)	(6/22)	(6/23)	(6/24)	(6/25)	(6/26)
마음							
design							
수업 1	빛나는	상상에	통한	창의	원예		
	퀴즈로	연결	다각	과학			
수업 2	일반어	사고와	실용	빛나는	원예		
	표현	영어	과학	과학			
맞는 정신과 토식이 있는 시간							
수업 3	타일맨	거탄	다들	프로그래밍	수업		
	(영화)	연극					
수업 4	가운뎃	학습	미들	프로그래밍	수업		
	회의						
개별	애니메이션의 역사, 드루, 조나						
프로젝트							
문답	대덕교육교회 청백회와 베드민턴 활동						
(목,사,금)							
성	점점 밝아지는 내 모습이 보인다						
찰							

내가 보낸 한 주는...

수업 시간마다 열심히 참여했다.
개별 프로젝트를 재미있게 수행했다.

바깥에 있는 삶

가온누리학교 개인별 학습 플래너

3) 연간 학습 플래너

가온누리학교

2016 자기주도 학습 플래너												
성명	학교	학년	진로계획			이유			학습전략			
최OO	OO고등학교	3	패션 디자이너 (국제 패션 디자인 전문학교 패션디자인과 희망)			옷, 신발 등 패션소품에 관심이 많고 감각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 포트폴리오: 패션 관련 스케치, 패션 관련 잡지 스크랩, 공부한 흔적, 옷 만든 거 등 2. 패션 관련 도서 요약·강리하기. 3. 패션 관련 자격증 준비하기.			
1년 학습 계획												
구분	2016년										2017년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학사 일정		28-30 1학기 중간고사			5-8 1학기 기말고사, 20 방학식	29-31 2학기 중간고사		4-7 2학기 기말고사				
학습 계획	국제패션디 자인전문학 교 탐색	부모님과 함께 대학교 방문 상담	패션 잡지 스크랩, 디자인 스케치	패션 잡지 스크랩, 디자인 스케치	패션 잡지 스크랩, 디자인 스케치	원서 접수 준비	2학기 수시접수	포트폴리오 정리, 수시면접 준비	면접		합격자 발표	
봉사 활동	고아원 방문	고아원 방문	원활	장애우 복지시설 도우미	이차림 계획 교회 성경학교 도우미	저소득층 자녀들 학습 도우미	고아원 방문	고아원 방문	원활	이차림 계획 교회 성경학교 도우미	장애우 복지시설 도우미	장애우 복지시설 도우미
독서 활동	「패션의 탄생」, 도서 후 요약	「패션의 탄생」, 도서 후 요약	「패션 뮤즈」, 도서 후 요약	「패션 디자이너의 세계」, 도서 후 요약	「패션 디자이너의 세계」, 도서 후 요약	「패션 학교에서 배운 101가지」, 101가지	「패션 학교에서 배운 101가지」, 101가지		「피피라핀 의 스타일 북」	「피피라핀 의 스타일 북」	자격증 공부	자격증 공부

자기주도학습



3) 몰입/프로젝트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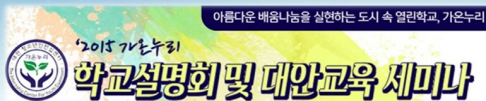
4) 여행학교



5) 예술 창작 활동



6) 부모교육



힘들고 지친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에게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주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때 : 2015년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 곳 : 가온누리센터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658-9 (농수산물 시장 인근)]
 ■ * 맛있는 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 내용

1부 : 대안교육세미나 (행복한 배움을 위하여)

열린학교 만들기	최정목 선생님 / 서부교육지원청
나의 가온누리 이야기	김진경 / 졸업생
ADHD 이해하기	최재근 센터장

2부 : 가온누리 학교 설명회

청소년 인턴십 센터 업무 소개
 가온누리 학교 입학 설명회

3부 : 나눔과 교제

심리상담 / 학습코칭 / 입학상담
 음악이 있는 다과와 친교의 시간

- 대상 : 가온누리 열린학교와 대안 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문의 : 042-488-1913 / 070-7584-2119
 홈페이지 : www.gaonnoori.org



7) 진로 인턴십 활동

가온누리 청소년 인턴십 활동

인턴십 수행 방법

- 지정된 기관에서 2주 ~ 4주 이내에서 활동
(필요시 연장가능)
- 인턴십 노트 작성
(매일의 수행 과정을 노트에 기록하며, 정기적으로 센터에 내방, 진로상담교사를 통해 코칭을 받음.)
- 성찰 및 향후 계획작성
(목표설정 or 향후 활동계획작성)

35

가온누리 인턴십센터에서 하는 일

가. 현장 인턴십활동 지원

- 다양한 직업분야의 멘토와 업무 협약 [지속적 발굴 중]
[기업, 의료, 금융, 법조,세무, 미용, 요식, 사회복지기관등]
- 개별 적성에 최적화된 직업현장 연계
- 인턴십 전 과정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한 코칭

나. 전문직업상담 및 예비 창업활동 지원

다. 취업 청소년 보호활동 프로그램

- 노동법, 인권교육, 입사에절, 면접 요령 교육
- 입사 후 적응 관리 프로그램 [상담및 코칭]

라. 청소년 진로 캠프 [매년 2회, 방학 중]

36

인턴십노트

인턴십노트

업체/기관명	아울라에 이음동행
실습기간	2015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

학교 · 학년	충청남도 2015년 2월 20일
성명	이 지 수

대전청소년인턴십센터 가온누리
The Internship Center For Youth GAONNOORI

인턴십노트

업체/기관명	여천 지리산 오월 아카데미
실습기간	2015년 9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 (10주)

학교 · 학년	충청남도 2015년 2월 20일
성명	이 지 수

대전청소년인턴십센터 가온누리
The Internship Center For Youth GAONNOO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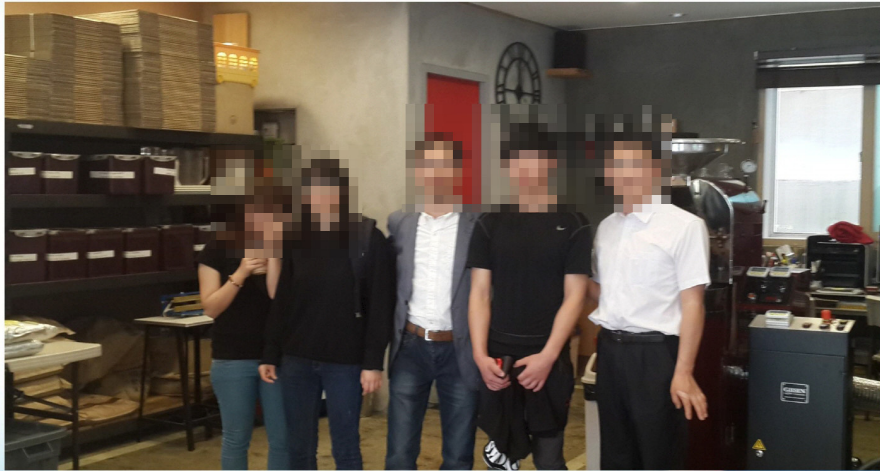
37

길잡이(멘토)교사 협약 및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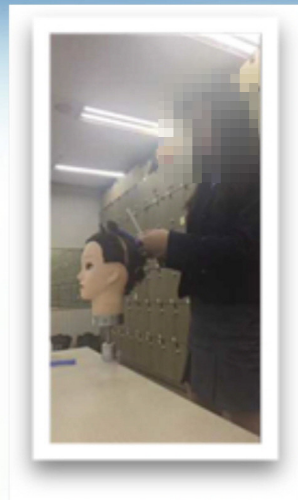
38

현장 인턴십 연계



39

인턴십활동: 헤어디자이너



40

인턴십 활동 (모델 아카데미)



41

인턴십 활동: 헬스트레이너



42

인턴십활동: 국제회의기획



43

인턴십활동: 요식업체 경영과정



44

인턴십활동: 요리사



45

#프로그램 운영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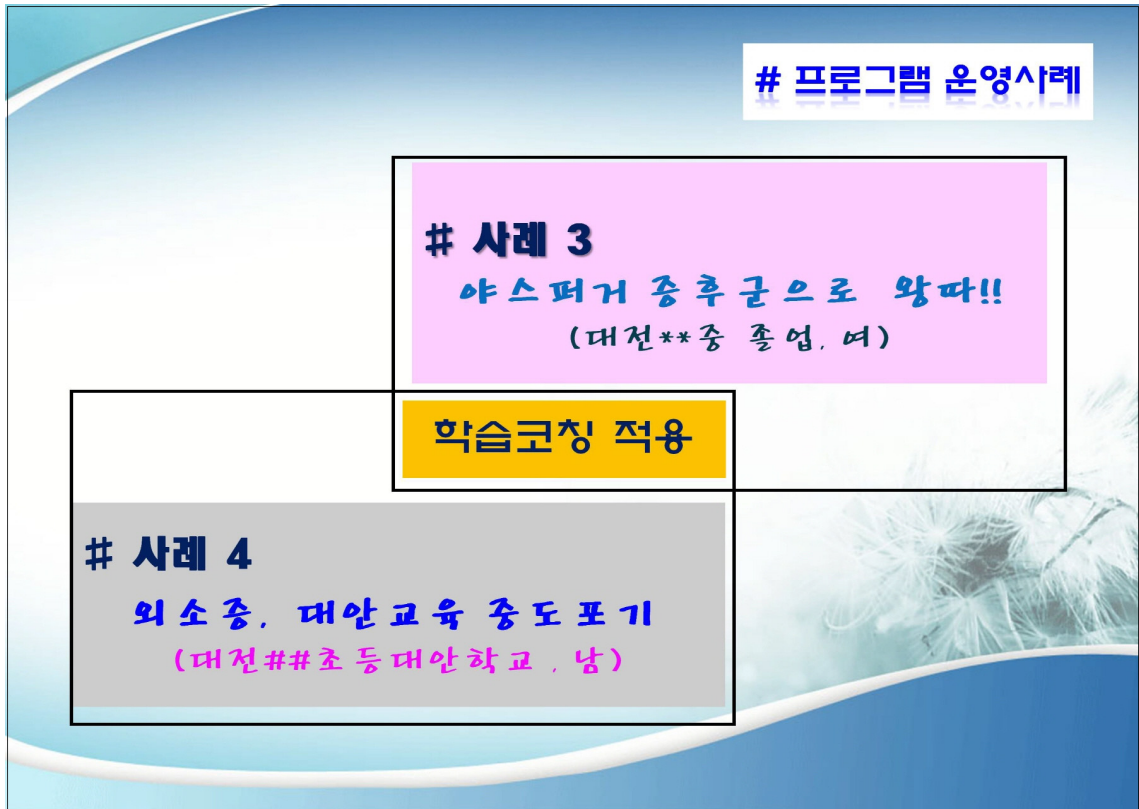
사례 1

과잉행동 · 폭력으로 인한 부적응
(**중 1. 남)

동기강화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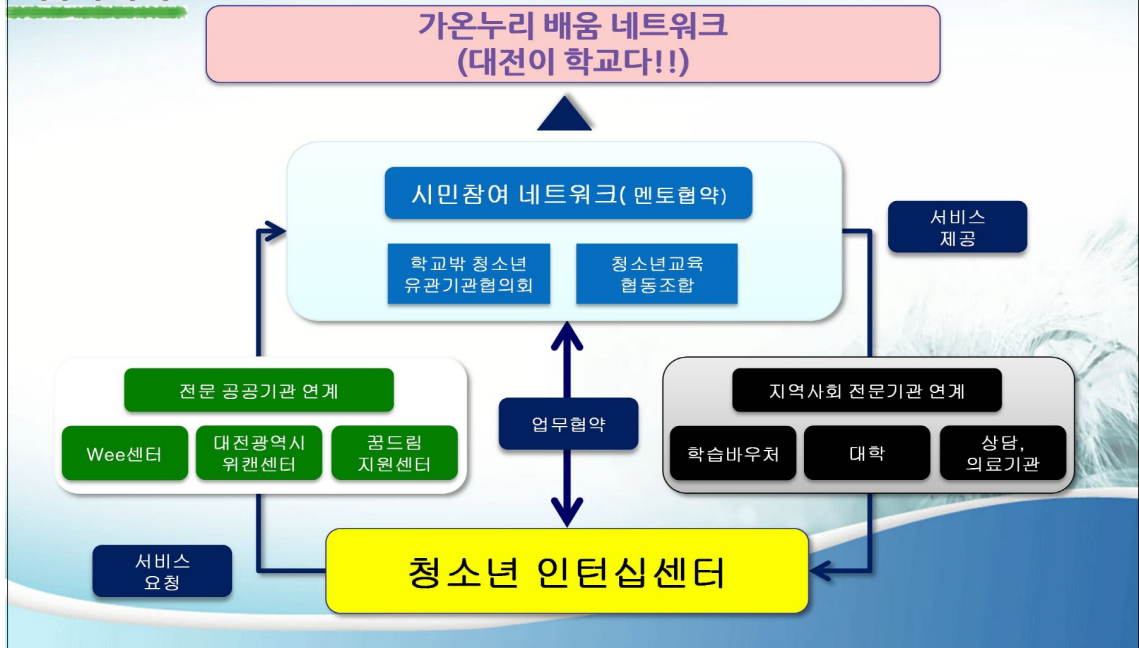
사례 2

불리 불안증세를 보이는 외톨이
(대전**중3. 남)



Ⅲ. 지역사회 자원연계

협력체계



IV. 프로그램 운영의 애로사항

학습동기 향상 PG 운영안계

- 학생: 낮은 학습 동기로 적응 포기
- 가정: 가정불화등으로 지원의사가 소실
- 학교: 자체 PG운영, 위탁학생 지원 안함
- 기관: 연계기관 및 전문가 부족
- 지역사회: 위탁형대안교육 인식부족



제2외국어 교육을 통한 동기회복 사례

고 성 혜

청소년희망학교 교장



동기개발사례-제2외국어 교육을 통한 동기회복 사례

청소년희망학교
교장 고성혜

청소년희망학교 개요

- 법무부 등록법인인 (재) 청소년희망재단에서 청소년희망학교 운영
- 2010년 3월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소재
- 고등학교 과정으로 현재 2학급(정원 40명) 운영
- 장기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이전에 만5년간 특별교육 이수기관
경력이 있음
- 일본어를 특성화 대안교과로 운영 : 제2외국어 교육을 통한
자신감 함양
- 봉사활동과 체험활동 중심으로 운영

청소년희망학교 교육목표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 관계 회복을 통한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성 함양
- 새로운 도전을 통한 자신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신감 고취
-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진로선택과 미래에 대한 비전 갖기

청소년희망학교 교육방침

-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 정착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기개발 의지를 확립**
 - : 삶의 책임의식 제고와 타인에 대한 신뢰감 형성
 - : 긍정적 가치관 형성과 대인관계 기술 등 사회성 함양 기회 제공
- **교사와 부모,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 운영**
- **학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학교생활 적응력과 자신감 형성**
 - : 기본, 기초적인 교과 수업 내실화
 - : 분반 수업의 조화로 교육의 효과 배가
- **외국어교육을 통한 자신감 형성 및 성취동기 격려**
 - : 실용적 학습과 체험활동 연계를 통해 교육 내용의 활용도를 높이고 성취감 제고

생활 일본어 중점, 특성화

- 영어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일본어교육을 집중함으로써, 위탁교육 대상 학생들의 자신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 국제화 시대를 창의적으로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관점을 기르고, 시야를 넓혀서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하려는 의지와 국제화 시대의 문화적 소양 향상
- 진학, 취업 관련 진로선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본어 선택
- 초반에는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함으로써, 학습 동기화 증진
- 최근에는 일본문화수업, 명동체험, 리틀 도쿄(영어마을과 유사하게 구성), 일본문화탐방, 일본 봉사활동 등을 통한 일본어 학습 진행
- 일본어 수준별 수업 진행(상중하가 아닌, 왕초보, 초보, 덜 초보반)

사 례

- 학업중단 위기에 있었던 여학생의 일본 교토 소재 대학교 입학
- 잦은 지각과 결석, 학교폭력 피해 경험 등으로 학교적응이 힘들었던 남학생이 일본어 수시면접으로 수도권 항공서비스학과 진학, 진학 이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본과 중국 연수 참여. 이후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실력 향상
- 일본어 이외에 학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등교거부를 했던 고1, 고2 여학생의 학교 출석률 향상
- 등교거부를 했던 고1 남학생 2명, 고2 남학생의 출석률 향상
- 다른 위탁기관에서 잦은 결석과 오후 등교로 수탁해제, 본 학교를 다니면서 출석률이 꾸준히 향상

학생의 행동변화를 이끌었던 교육활동

- 다양한 체험 활동 - 문화체험, 산행, 법교육 캠프, 박물관 기행 등 실시. 이를 통해 정답이 오고 가는 이야기 상담과 공동체 활동, 신체적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 회복,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자기표현과 자신감 함양을 위한 미술치료, 스피치 수업
- 연극활동, 인형극 등을 통한 분노표출, 역할극을 통한 감성 표현, 상대의 입장 조망
- 난타, 잼베, 기타, 우쿨렐레, 탭댄스 등 수업
- 가족 캠프(위탁생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1박2일 캠프. 필수)
- 봉사활동 - 1박2일(농활, 정신지체인시설), 당일(가평꽃동네,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 배식봉사 등)

학생의 행동변화를 이끌었던 교육활동

- 학생 스스로 학교와 선생님으로부터 존중 받고 있다는 느낌, 관심 받고 있다는 느낌
 - : 담임교사의 헌신적 태도 - 학생 중심의 교육
 - : 재단 내 직원들이 학생지도에 함께 참여 - 적응교육, 캠프, 수업준비 등
 - : 강사 선생님 대상의 연수와 격려 - 소속감, 대상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 제고
- 담임교사에 대한 지지와 연수 기회 제공 - 교사로서의 자질 함양과 성장
- 멘토링 활동 - 인근 대학교 학생과의 결연
- 방과후 활동 - 희망자 대상으로 실시
- 부모와의 끊임없는 소통, 부모의 참여와 자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도록 격려
- 고등학교 3학년생 대상의 대학생활 준비교육 - PPT, 논문 작성
-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 마련(외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조달)

청소년희망학교에 다니려면?

- 일본어를 좋아하는 사람만 다닐 수 있나? 일본어를 싫어하면 다닐 수 없는가?
- 일본어를 잘 하는 사람만 다니는가?
- 일본어를 선택하고 오는 학생이라면 그래도 심각한 아이들은 아니지 않은가?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되는 아이들 아닌가?
-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없고 거부감이 들더라고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경우, 거부하지 않음. 다만 언어에 관심이 없는 학생의 경우 적응을 힘들어함

그동안 대안교육의 문을 두드린 청소년은?

- 무기력하고 목표 상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름
- 에너지가 바닥, 불안감이 큰 학생
- 등교거부
- 절도나 금품갈취 등 문제행동 습관화
- 교사와 또래에 대한 폭언과 폭행
- 부모의 통제력 밖에 있고, 부모를 통제함
-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분노하고 좌절했지만, 여기서도 제도권 교육의 방식대로 주위를 통제하려 함
- REAL SELF와 IDEAL SELF간의 GAP이 큰 학생
- 충동성, 공격적인 청소년, 외모 치장에 목숨을 거는 학생
- 정신과 치료 및 전문가 상담을 받음
- 현실을 직시하지 못함. 모순된 행동, 가치관, 들쭉날쭉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
- 그래도 희망은 있기에.....

운영상의 어려움

- 각자 다른 이유로 위탁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움. 그렇다고 일관성 없게 학생지도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기 쉬움. 만들어 놓은 규칙 때문에 학생이 수탁해제 되지 않도록 함. 학생에게 규칙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기회 제공할 필요 있음
-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의뢰된 학생 다수는 학교로부터 배척당한 경험 때문에, 교사에 대해 단지 '교사'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반항. 교사에 대한 분노가 있는 상태로, 어느 정도 적응하기까지 시간을 요함. 따라서 기다려주어야 함

운영상의 어려움

- 폭력 가정, 부모간 불화와 갈등 등으로 상처받은 청소년들이 한번도 제대로 된 상담과 치유 기회 없이 방치된 채, 대안교육기관에 의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기관의 역량으로 역부족인 경우가 많음
- 단순 학교부적응 학생으로부터 우울성향이나 반사회적 행동, ADHD 진단 학생, 학대경험 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법적 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 등을 포함,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이 다수이기에 한 공간에서 기질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음

온영상의 어려움

- 일본어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무언가 자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임
- 대안교육에 임하는 사람들의 경우, 위탁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기본이지만, 위탁학생 대상의 교육에 참여하는,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존중 받아야 함

: 부적응 학생들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한 시간강사, 전문가 등의 에너지 소진도 문제

: 대안교육에 대한 열정을 지닌 사람, 대안교육에 다년간 참여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창의적 체험학습을 통한 진로탐색

박 은 혜

돈보스코학교 교사



광주광역시교육청Wee스쿨

“교육은 마음의 일” 입니다.

- 돈 보스코 -

창의적 체험학습을 통한 진로탐색

2016. 8.



기쁨과 희망의
돈보스코학교

1. 돈보스코학교 소개

가. 기관 운영

- 201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설립,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위탁 운영
- 학교법인 살레시오회에서 교육경력 20년 이상의 교원을 학교장으로 파견

(참고) 살레시오 수도회 : 1859년 이탈리아의 토리노에서 창립된 수도회로 창립자인 성 요한 보스코(St. Jonh Bosco, 1815-1888)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과 사랑에 바탕을 둔 건전하고 원만한 인격형성을 이루도록 청소년을, 특히 주로 가난하고 버림받은 청소년을 교육하는 수도회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복지 및 교육 사업을 실천하고 있음

나. 교육철학



“예방교육”이란 청소년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자질을 모든 차원에서 일깨워줌으로써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방법

- * 이성 : 합리성. 청소년의 인격을 존중해 주며 이성적으로 대함
- * 사랑 : 감응하는 사랑. 상호적인 사랑을 의미하여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함
- * 종교 : 희생과 봉사라는 전 종교적인 가르침을 더해 완성도 있는 교육을 실현함

교육목표

- ◎ 더불어 살 줄 아는 정직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기른다.
- ◎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사람을 기른다.
- ◎ 일상에서 기쁨을 길어내며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을 기른다.



돈보스코학교

-우리가 꿈꾸는 학교-

◎ 학교의 모습

신뢰감이 넘치는 학교

◎ 교사의 모습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사명감 넘치는 교사

◎ 학생의 모습

기쁘게 생활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학생

다. 교직원 현황

(2016학년도 기준)

구분	교원					행정직원					계 (명)
	교장	교감	교사	상담	소계	실장	직원	영양사	조리원	소계	
정원	1	0	11	2	14	1	2	1	2	6	20
비고	학교장, 교사 1명(학교법인살레시오회 파견) 및 전문상담사 등 3명 포함										

- 보통교과 담당 전원 해당교과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
- 본교 중점 교육활동을 위한 노작활동 교과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귀농학교 운영자) 채용
- 행정직원 관련 업무 경력직 채용 및 해당 업무 자격증 소지

2.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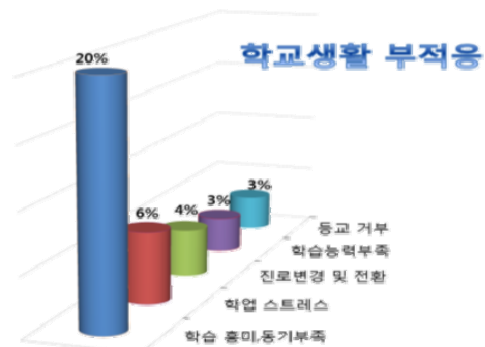
가. 위탁생 및 준비적응교육생 누계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현재	누계
위탁생 수	108	133	95	103	142	114	42	737
준비적응교육생 수	126	159	119	121	191	130	49	895

나. 이용현황

- 의뢰 학생 대부분은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고, 학업에 대한 관심과 성취도가 저조함
- 교칙위반이나 교권침해 등 징계로 인한 위탁 비율도 높은 편
- 위탁 주 호소 문제

구분	비율(%)
학교생활 부적응	36
교칙위반	21
친구관계	13
장기결석	6
진로미반영	5
기타 (게임중독 등)	19



다. 교육과정

-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해 보통교과 보다는 학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 향상과 재능발견을 유도하고, 인내심과 협동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대안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

구분	영역	세부 운영 프로그램
보통교과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진로와직업 , 외국어
대안교과	인성	산악등반, 국토순례, 문화탐방, 생태학습, 노작활동, 마음공부
	특기적성	풍물, 합창, 밴드(보컬, 드럼, 기타), 요가체조 및 명상
	진로탐색	도예, 풍선아트, 공예, 골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식구총회, 홈스테이, 예방교육, 성교육, 5.18교육, 미술치료, 체육대회, 축제 수료식, 예절교육
	동아리	체육활동, 과학활동, 수학활동, 컬러테라피, 바느질
	봉사	복지센터, 요양원 등 현장 방문 봉사, 봉사 교육 캠프
	진로	직업군별 초청 강연회, 희망 직업 멘토와의 만남, 직업체험
준비적응교육	-	음악활동, 체육활동, 미술활동, 학교폭력 예방교육, 집단상담, 개인상담, 산행, 등
부모(가족)교육	부모 교육	소그룹 상담, 부모의 역할과 마음가짐, 올바른 자녀 교육법
	가족 치료	역할극을 이용한 가족심리치료 및 가족홈스테이

라. 추수지도

목적	· 위탁교육의 효과 및 학생 변화 추이 확인 · Wee스쿨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위탁교육 전개를 위한 방안 모색에 활용
대상	· 직전학기 위탁교육생 중 현재 재위탁 하지 않은 학생 전원
방법	· 학생 직접 만남 및 유선 연락(직전학기 담임 협조) · 재적교 현재 담임교사 혹은 담당교사(교감, 상담교사, 학생부교사 등)와 유선 연락 · 재적학교 방문을 통한 학생 및 담당교사 직접 면담 · 시기 및 장소 등에 관계없이 수시 연락 및 본교 교사 개인 시간을 활용한 외부 만남 · 추수지도 대상자 중 일부는 필요에 따라 본교로 내방 요청

3. 진로교육

가. 홀랜드검사 및 진로상담

- 보통교과 중 “진로와직업” 수업 개설
- 자신의 성격에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홀랜드 직업성격검사 실시
- 결과를 토대로 진로 상담 진행
- 학생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막연한 진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독려
-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자신감 부여

나. 진로탐색을 위한 대안교과 운영

- 대안교과 중 ‘특기적성 및 진로탐색’ 영역 교과 운영
- 다양한 직업에 관한 올바른 지식 및 관련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함
- 운영 교과

연도	개설 교과
2010	생활원예, 컴퓨터활용능력, 헤어미용, 피부미용, 바리스타, 기타, 의상디자인
2011	연극, 연기, 도예, 풍물, 애니메이션, 사무자동화일반, 풍선아트, 비즈공예, 골프, 댄스, 요가
2012	도예, 애니메이션, 사무자동화일반, 풍선아트, 비즈공예, 골프
2013	도예, 애니메이션, 풍선아트, 비즈공예, 골프
2014	연극, 도예, 풍물, 풍선아트, 비즈공예, 골프, 밴드(보컬,드럼,기타), 댄스, 요가
2015	연극, 도예, 풍물, 풍선아트, 비즈공예, 골프, 밴드(보컬,드럼,기타), 댄스
2016 현재	도예, 풍물, 풍선아트, 골프, 밴드(보컬,드럼,기타), 요가, 공예, 합창

- 학년별 교과 지정, 성별(학년별) 교과 일부 선택, 전 교과 학생 개인별 선택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방식의 변화를 꾀함
- 전 교과 외부 전문강사 초빙
- 운영하는 전 교과에 한하여 학생이 원할 경우 자격증 준비과정 별도 실시
- 해당 강사 협조를 통하여 위탁교육 종료 후에도 개인별 학원 등록 가능
- 학생 수준에 맞춘 개인별 교습

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다양한 진로교육 및 체험

1) 미디어교육(영상제작 교육)

- 교내 아침명상방송 운영에 학생 참여 독려
- 음성방송의 화면방송 전환에 따른 학생들의 미디어 관심 증폭
-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하여 미디어교육 기획
- 본교 운영재단 산하 돈보스코정보문화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 교육 의뢰
- 돈보스코정보문화센터 전문강사 및 교육진행자 본교 내교
- 3일간 캠프 형태로 진행
- ‘인터넷 윤리교육’을 주제로 사전 교육, 조별 영상제작 프로그램 운영
- 세부내용 : 인터넷윤리교육, UCC제작(시나리오 및 콘티 작성, 촬영 및 편집, 자막), 작품발표회
- 단순 체험을 목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촬영장비 등 제반사항 준비가 쉽지 않음
- 당시 교육운영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교육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운영함
- 영상(UCC)을 제작하는 전 과정으로부터 학생들이 각 역할에 따른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주제 및 요소별 전공자의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확대 기획하여 교육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2) 두드림존 프로그램 위탁 운영

- 진로목표의 동기강화 및 실질적인 경제 및 직업 체험 유도를 위하여 시행
- 지역 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탁 운영
- 1차, 4일간 단계별 프로그램 시행(비전수립, 경제관리, 진로탐색, 구직기술, 독립 생활기술, 미래계획)
- 2차, 모의창업을 통한 경제활동 체험이나 인명구조술 자격취득과정 등 체험프로그램 진행
- 지역 내 전문기관 프로그램 도입으로 본교 취약점에 따른 진로교육 보완 가능
- 해당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 관한 지속적인 연계 관리를 통하여 문화예술 체험, 각종 자격증 준비 과정 등에 관한 교육기회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음
- 본교 위탁교육이 종료 된 이후에는 학생 연계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교육내용의 우수함에 비하여 집중시간이 짧은 위탁생들의 특성 상 학습 효과가 높지 않음
- 각 요소별 프로그램 내용을 본교 학사운영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교육활동에 도입

3) 진로탐색의 날

- 다양한 직종의 전문 직업인을 초빙, 실질적인 직업 정보 탐색 기회 제공
- 학생들의 희망직종 사전 조사를 통하여 관심도가 높은 직업군 선발
- 방송진행자, 요리사, 헤어디자이너, 엔지니어(자동차, 전산), 바리스타, 경찰, 유통업계 종사자, 행정공무원, 간호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 직업군이 확정되면 공지를 통해 만나고 싶은 직업군 전문가를 선택, 결과에 따라 그룹 편성
- 편성된 그룹별로 일정 시간 동안 직업인을 직접 만나 해당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직접 알아봄
- 워크북을 제작하여 지참하도록 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기록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함

4) 강소기업탐방

- 지역 내 중소기업 방문 현장 견학을 통한 취업 준비 교육 체험
- (사)인재육성아카데미 프로그램 협조
- 방문 기업에 대한 소개, 현장 견학, 채용 설명회, 면접 실습, 신입사원 교육 체험 등
- 위탁생 중 일부 전문계열 학생들의 경우 유사한 패턴의 기업 방문 경험 있음
- “취업”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부족함

5) 명사 초청 강의

- 인성,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진로 및 비전 강의를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한국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 재능기부를 통한 유명인사의 강의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과 앞으로의 긍정적인 미래 설계에 대한 방향을 제안

- 학생들이 알고 있거나,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직업이나 미래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인생 강연의 효과가 있음
- 학교차원의 별도 명사 강연 준비에 대한 부담을 위탁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강연 시간이 한 시간 내외로 짧은 것이 아쉽고, 연간 1회 지원의 한계가 있음

6) 학급활동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담임교사 중심 학급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기획
- 학년별, 성별 구분 학급 운영에 따른 장점을 살려 학급 구성원의 특성에 맞는 진로 체험활동 실시
- 요리, 제빵, 수공예품 제작, 캘리그래피, 낚시, 아동보호사 등
- 지역 내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선택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사전 조율
- 사전 계획에 의하여 특정일자 해당 학급의 외부 활동 지원

7) 문화체험활동

- 평소 본인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미래 설계를 시작한 우수 학생 선발
- 한국잡월드(경기도 성남시 소재) 방문 다양한 활동 체험 및 직업 정보 제공
- 연극 등 학생 관심 분야 정통 공연 관람을 통하여 문화의식 교육
- 미래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교육 및 이에 대한 성장에 따른 보상 차원의 추가 교육 목적
- 지방의 특성 상 다수의 학생들 대상으로 시행하기에는 숙박 등 진행 예산에 대한 부담이 큼
- 프로그램 운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학생별 계획된 진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4. 학생들의 변화

가. 진로프로그램 후 학생들의 변화

- 뜻밖에 재미있거나 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자존감 향상

- 하고 싶은 일(공부)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민이 많아짐
- 각자 나름의 어려움으로 중단되었던 취업준비를 다시 시작하게 됨 (학원 등록 및 수강 등)
- 2010년 위탁생 중 한 남학생의 경우 본교 진로교과를 통해 접하고 헤어 및 뷰티 전공 중
- 위탁생 중 80%이상 대학진학, 취업, 가업 계승

나. 전반적인 학교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긍정적 변화

- 결석, 지각 감소 등 출결사항 개선
- 학교 교육 및 교사에 대한 신뢰도 향상
-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태도의 긍정적 개선
- 집중력 향상
- 대인관계 개선
- 자존감 향상
- 대학진학 및 취업 비율 증가
- 재적교 복교 후 학업 지속 비율 증가



학교를 넘어선 학교

- L.T.I. 프로젝트 -

하 태 종

태봉고등학교 교사



LTI 프로젝트 학습

하 태 종

태봉고등학교 교사

“우리는 지금 가만히 멈추어 서서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혼자 있을 시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을 시간이

창조적인 일을 할 시간이

즐거움을 주체적으로 즐길 시간이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고

그저 근육과 감각을 움직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구상하고

기획할 시간이 필요하다”

- 폴 라파르그(1842 - 1911)



김광철(3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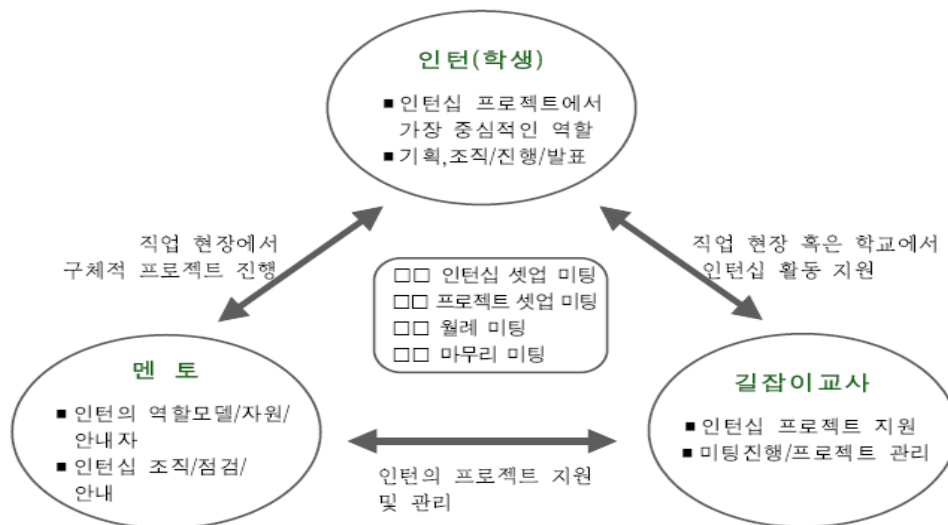
☐ LTI와 LTI 프로젝트 학습

LTI란 ‘Learning Through Internship/Interest’ 의 약자로서
 인턴십을 통한 배움, 또는 흥미·관심을 통한 배움을 뜻합니다.
 LTI 프로젝트 학습이란,
 학생 저마다의 관심에 따라
 학교 밖 현장에 나가 인턴십과 자기주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배움을 얻는 학습입니다.

가령 미용사가 되고 싶으면 미용실로 가고, 요리사가 되고 싶으면 호텔이나 큰 식당의 요리사를 찾아가는 거지요. 방송국 PD가 되고 싶으면 방송국으로 가고,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으면 유치원으로 가는 겁니다. 음악이나 미술, 무용 등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배울 수 있는 멘토를 모시기 어려워 학원 선생님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히 지금 뭘 해야할지 모르겠고 자기만의 꿈을 찾지 못한 친구들은 학교 안의 길잡이 교사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학교 밖의 멘토를 찾아다니면서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배움을 이어가는 거죠.

- p104, 공립 대안 태봉고 이야기(여태전, 여름언덕)

☐ LTI 프로젝트 학습 지원 체제



〈LTI 프로젝트 학습(인턴십) 지원 체제〉

❖ LTI 프로젝트 학습 과정

단계	과정	과정 설명
준비 단계	학생 관심사 알아보기	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일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단계
	↓ ①	↓
	LTI 모둠 회의	학생, 도움교사가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 ②	↓
	진로 탐색과 일일 체험	학생이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단계
	↓ ③	↓
실행 단계	프로젝트 과제 선정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인턴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
	↓ ④	↓
	LTI 모둠 회의	학생, 도움교사, 멘토가 참여하여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 ⑤	↓
	프로젝트 과제 수행	학생이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
	↓ ⑥	↓
평가 단계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제출과 발표	학생이 프로젝트 과제 수행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발표하는 단계
	↓ ⑦	↓
	학생 자기평가	학생이 자신이 수행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성찰하는 단계
	↓ ⑧	↓
	멘토, 도움교사, 학부모 평가(서술평가)	학생에게 어드바이저가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
	↓ ⑨	↓
정리 단계	프로젝트 결과 정리	학생이 프로젝트 결과를 정리하여 졸업논문을 준비하는 단계
	↓ ⑩	↓
	졸업논문 다듬기	학생이 자신이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를 논문의 형태로 다듬는 단계
	↓ ⑪	↓
	졸업논문 심사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 LTI 프로젝트 학습은 개인의 능력에 맞게 무학년제로 운영된다.

진행 단계별 학생(인턴)의 역할

	진행 단계	학생(인턴)의 역할
준비 단계	인턴십 구상 (학습계획 수립)	자신의 관심사, 학습 과정을 파악해 보고 적합한 인턴십을 구상한다. • 도움 교사와 학습계획 미팅 가지기 • 관심사에 근거한 인턴십 구상하기
	인턴십 기획 (현장과 멘토 연계)	구상한 인턴십에 적합한 현장과 멘토를 찾아 결정하며, 인턴십을 조직하기 위한 미팅을 계획한다. • 현장·멘토 리스트 만들기, 연락하기 • 가능성 있는 멘토 방문하기 • 예비 멘토에게 자료 보내기 • 인턴십 조직(Set-up)미팅 시간 잡기
	인턴십 조직 (Set-up) 미팅	인턴십 현장에서 예비 멘토를 만나 인턴십을 확정하고 기간·날짜·시간 등을 결정한다. 관찰 단계의 일에 대해 의논하고, 상호 의무사항을 확인하며 연락처를 교환한다. • 멘토에게 학습과정 및 계획 설명 • 인턴십의 기본적인 사항(기간, 날짜, 시간)과 관찰 단계에서의 역할 정하기 • 중요한 사항 메모하기 • 인턴십이 확정되면, 멘토 수락에 대한 감사카드(메일) 보내기 [준비할 것] 자기소개서, 인턴십 학습 계획서
실행 단계	관찰 단계	현장과 멘토를 관찰하면서 현장에 적응하고 멘토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인턴십 기간동안 진행할 도전적인 과제(프로젝트)를 구상한다. • LTI 활동 일지 쓰기 • 현장 및 멘토에 대해 관찰한 내용 정리하기 • 구체적인 과제(프로젝트) 구상하기
	프로젝트 기획 (Set-up) 미팅	현장과 멘토를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인턴십 기간 동안 수행할 업무와 수행할만한 과제(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멘토·교사와 의논하며, 계획을 세운다. •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리스트 만들기 • 모임의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을 토대로 프로젝트 계획서 및 일정 작성하기 • 도움교사·멘토에게 프로젝트 계획서 보내기
	프로젝트 실행	멘토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실행기간 동안 진행과정을 기록하며 멘토·도움교사와 정기적인 미팅을 가지고,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해 나간다. • LTI 활동 일지 쓰기 • 멘토와 정기적인 만남 갖기 • 도움교사와 수시 소통하고 의논하기 (월요일 7교시)
	프로젝트 발표회	멘토, 교사, 동료 학생들, 부모 등을 초대하여 인턴십 진행과정과 프로젝트 결과물을 평가하고 발표하며, 피드백 받는 자리를 갖는다. • 멘토, 교사와 함께 발표회 의논하기 • 발표회 준비 : 자료준비, 초대하기, 발표연습 • 발표회 진행 : 발표 및 피드백 받기 [준비할 것] 보고서, PPT 자료
	인턴십 지속 여부 결정	인턴십을 지속할지, 다른 인턴십을 찾을지, 다른 학습 프로젝트를 수행할지 결정한다. • 발표회 피드백 내용 정리 • 교사, 멘토와 향후 학습계획 의논하기
정리 단계	마무리 미팅	미팅을 갖고 교사, 멘토와 함께 인턴십을 평가하고 마무리한다. • 인턴십 지속 → 프로젝트 기획 미팅 단계 • 멘토 등 도움을 준 분들께 감사카드 쓰기

☐ 멘토교사의 역할

1) 역할 모델(role model)

멘토는 인턴(학생)들에게 자신과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어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합니다. 학생과 진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멘토는 그들에게 우리 지역사회의 성인 구성원으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직업윤리도 가르쳐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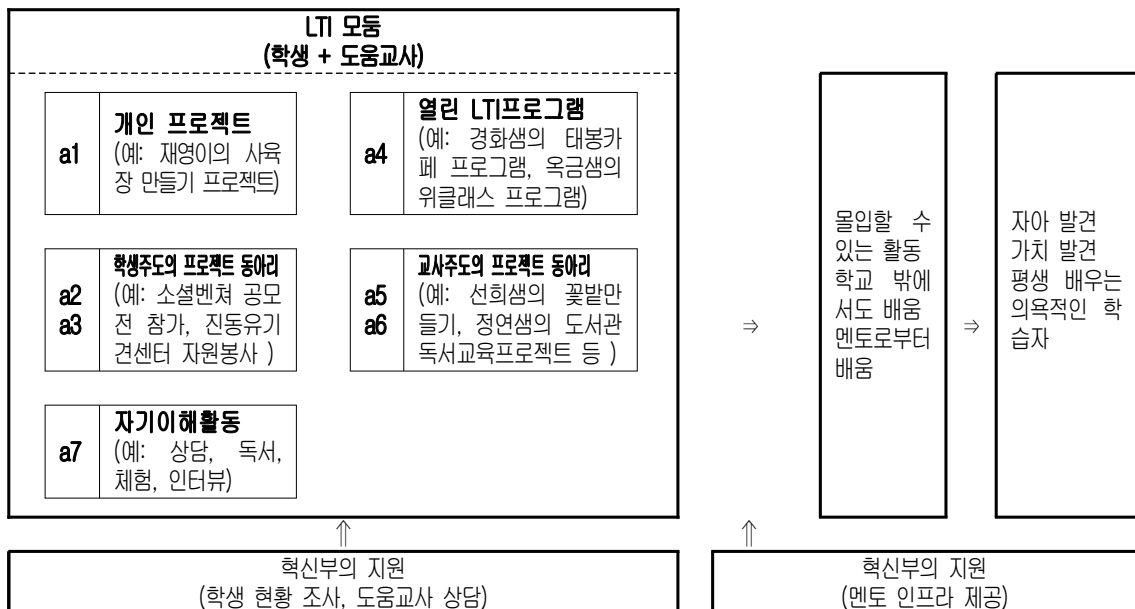
2) 자원(resource)

멘토는 인턴(학생)과 같은 관심 분야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인턴이 인턴십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리소스 역할을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턴이 장기적 삶의 전망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리소스 역할을 합니다.

3) 안내자(guide)

인턴(학생)은 멘토와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배움을 실생활로 연결하게 됩니다. 학교 밖 현실세계의 전문적 직업 환경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학생들은 심도 있게 학습의 맥락을 이해하게 됩니다. 멘토는 업무와 일정을 검토하고 직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 수준에 대한 기대치를 인턴이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매주 학생과 만나 프로젝트 진행을 돕고 점검해 줍니다.

☐ 길잡이 교사(도움교사)의 역할



1) 귀 기울여 들어주기

- 프로젝트 기획과 진행 상황
- 배움의 상태와 생활 전반 등 (새로 시도한 점, 서로에게서 발견한 점, 고민하고 있는 점, 노력하고 있는 부분, 지난 한 주 동안 특별한 사건, 모둠원에게 칭찬하고 싶은 점)

2) 만남 이어주기

- 멘토 (학교 밖 교사)와 이어주기
- 지역 전시회나 체험전, 공부 모임, 프로젝트 관련 사례나 정보 안내

3) 확인하기

- 활동계획서나 일지 작성

4) 한 명 한 명을 주인공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기

- 보고서와 발표를 중심으로 평가

<통계로 본 LTI >

1. 2015학년도 3학년 진학 결과와 LTI 활동의 비교

반	번호	성명	학과(진로)	LTI		
				1학년	2학년	3학년
○			취위생과	영어	끼모아,성악	유지컬
			경영학부	NGO	출판편집,야구	야구,스포츠마케팅
○			진로모색	사회참여	끼모아, 운동	운동
			패션	패션	진로모색	진로모색,패션
			항공운항과	토익,봉사	토익,봉사	토익,항공스터디
			TV영화학	진로모색	봉사	진로모색,영상
			미술교육	미술	미술	미술
			바리스타공부	카페	카페	제과제빵,바리스타, 이탈리아어
			유아교육	요리	봉사(아동센터)	봉사(아동센터)
			건축공부	음악,목공	음악,목공	음악,목공
			요리과	요리	요리	요리
			바텐더	음악	심리학,글쓰기	바텐더,글쓰기,독서
○			취업	자동차달리	정비사,음악	음악
○			조경학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창업)
			음악과	진로모색	진로모색	음악
			학업	학업	학업	학업
			패션디자인	미술	미술	미술
			문헌정보학	도서관	지역도서관,봉사 (이주민센터)	진동도서관
			진로탐색	유치원	플로리스트,유치원	수공예,진로모색
			취업, 시민운동	도시재생,독서	연극, 수공예	학생회,시민운동
			유아교육과	가야금,유치원	가야금,유치원	가야금,유치원
			사회복지	진로모색	카페,봉사 (아동복지센터)	봉사(아동복지센터), 댄스
○			광고홍보학	아동센터	진로모색	바리스타,진로모색
			의류학	패션	패션,바리스타	패션,메이크업,
			동물조련이벤트	곤충농장	곤충농장	곤충농장,방송부
			물리치료학	만화,에니메이션	물리치료,봉사	물리치료,진로모색
			진로모색	상담활동	상담활동	상담활동, 글쓰기
			진로모색	유치원교사, 방송부	방송부	방송부
			미용	미용	미용	미용
○			관광학부	바리스타		학업
			웰빙체육학부	택견	바리스타,운동	운동,학업
○			생활도예과	봉사,명상	봉사,글쓰기,그림	봉사(마산복지회관), 상담
			인문학 공동체	끼모아	끼모아,글쓰기	글쓰기,캘리그래피

반	번호	성명	학과(진로)	LTI		
				1학년	2학년	3학년
			진로모색	유기견보호센터	바리스타,운동	운동
			사회복지	상담	상담,봉사	상담,봉사
			관광학부	유기견보호센터, 다양한활동	바리스타,다양한활동	끼모아,다양한활동
			수학교육과	느티나무아동센터	느티나무아동센터	영어도서관,학업
			음악과	끼모아	끼모아	성악,끼모아
			항공서비스	유기견보호센터	학업	학업,독서,스튜어디스
○			진로모색	요리	음악,바리스타	바리스타
			메카트로닉스	로봇프로그래밍	회로,프로그래밍	3D모델링,상담
			교육학과	운동,지역아동센터	운동,공부,밴드	운동,공부,밴드
			신학과	역사	역사(창원대박물관)	역사
			건축학과	바리스타,목공	목공	목공
			진로모색	글쓰기, 창동재생프로젝트	사진,미디어비평	미술프로젝트
○			수산학	끼모아,목공	끼모아,밴드	밴드,운동,끼모아
계(총 45명)			진학, 진로 결과가 LTI 활동과 상관있는 경우 = 80% (36명 /45명)			
			진학, 진로 결과가 LTI 활동과 상관없는 경우(○) = 20% (9명 /45명)			

2. LTI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는가?

(LTI 프로젝트 학습의 가치 /학생 대상 설문 조사)¹⁾

LTI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명)	비율
나를 더 잘 알게 됨 (자기 발견)	7	6	7	20	25%
진로탐색, 선택에 도움이 됨 (진로계발)	12	8	8	28	35%
공부할 이유가 생김 (학습동기 유발)	4	5	0	9	11%
마음껏 놀아서 좋았다 (자유와 해방)	2	4	4	10	13%
모르겠다	2	4	1	7	9%
기타	2	2	2	6	8%
계				80	100%

1) 3기 졸업생 주성현의 졸업논문에서 발췌

3. 학생들이 경험한 LTI는 우리 학교의 교육목표에 충실했는가?

(LTI 교육목표 충실정도)²⁾

단위 : 명(%)

	교사			학생			
	예	아니오	계	무응답	예	아니오	계
인원	15(93.8)	1(6.2)	16(100)	1(1.6)	45(71.4)	17(27.0)	63(100)

4. LTI 교과시간을 충실히 보내고 있나? (LTI 교과시간 충실정도)

단위 : 명(%)

	교사			학생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인원	5(31.3)	11(68.8)	16(100)	46(73.0)	17(27.0)	63(100)

5. LTI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

(LTI 교육 활동의 어려움/학생 대상 조사)

LTI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꿈이나 목표가 없다	6	5	8	19
시간이나 여유가 없다	4	5	1	10
멘토 확보가 어렵다	5	9	7	21
학교(선생님)의 도움이부족하다	1	2	0	3
모르겠다	7	5	3	15
기타	1	2	3	6
합계				74

6. LTI 기관 및 멘토선정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LTI 기관 및 멘토선정의 어려움)

단위 : 명(%)

LTI 기관 및 멘토 선정의 어려움	교사	학생
무응답	1(6.3)	6(9.5)
① 나의 적성과 흥미를 찾지 못해서 어렵다.	6(37.5)	5(7.9)
②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4(25.0)	26(41.3)
③ 나의 관심분야에 대해 아는 기관이 없다.	4(25.0)	5(7.9)
④ 별로 관심이 없다.		10(15.9)
⑤ 기타()	1(6.3)	11(17.5)

2) 3~6번 결과, 4기 졸업생 이건호 학생의 졸업논문에서 발췌

7. 현재 LTI 현황은 어떠한가? (LTI 활동 현황)

2015.11.4.(2차조사)

유형	내용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비율(%)
인턴십	바깥으로 나가서 인턴 활동	7	3	7	17	13
자주학습	자기주제탐구학습	14	19	24	57	42
동아리, 학생회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	22	21	12	55	40
진로모색	진로모색중이거나 해방되어자유를누림	3	1	2	6	4
기타	그 밖에 다양한 활동	0	0	1	1	1
학생수(계)		46	44	46	136	100

❖ LTI 프로젝트 학습

LTI란 ‘Learning Through Internship/Interest’ 의 약자로서
인턴십을 통한 배움, 또는 흥미·관심을 통한 배움을 뜻한다.

LTI 프로젝트 학습이란,
학생 저마다의 관심에 따라
(학교 밖 현장에 나가) 인턴십 또는 자기주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배움을 얻는 학습이다.

태봉고만의 LTI 프로젝트 학습 관점 잡기 - **업처**와 ‘메트스쿨’을 넘어서

가. 하자,

- 자유 속에서 저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도와주고 귀 기울여주기

나. 배움의 난장,

- 학생 또는 선생님이 저마다 주체가 되어 새롭게 만들어 내는 다양한 배움의 장

다. 인턴십은 세다,

- 학교 바깥으로 나가라, 멘토를 찾아 인턴십을 하라, 큰 배움이 기다리고 있다.



셋째날 8.10(수)

- 대안교육 담당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 아르바이트, 아동학대, 가출, 소년보호제도 -
김 차 연 제주법률사무경영 진솔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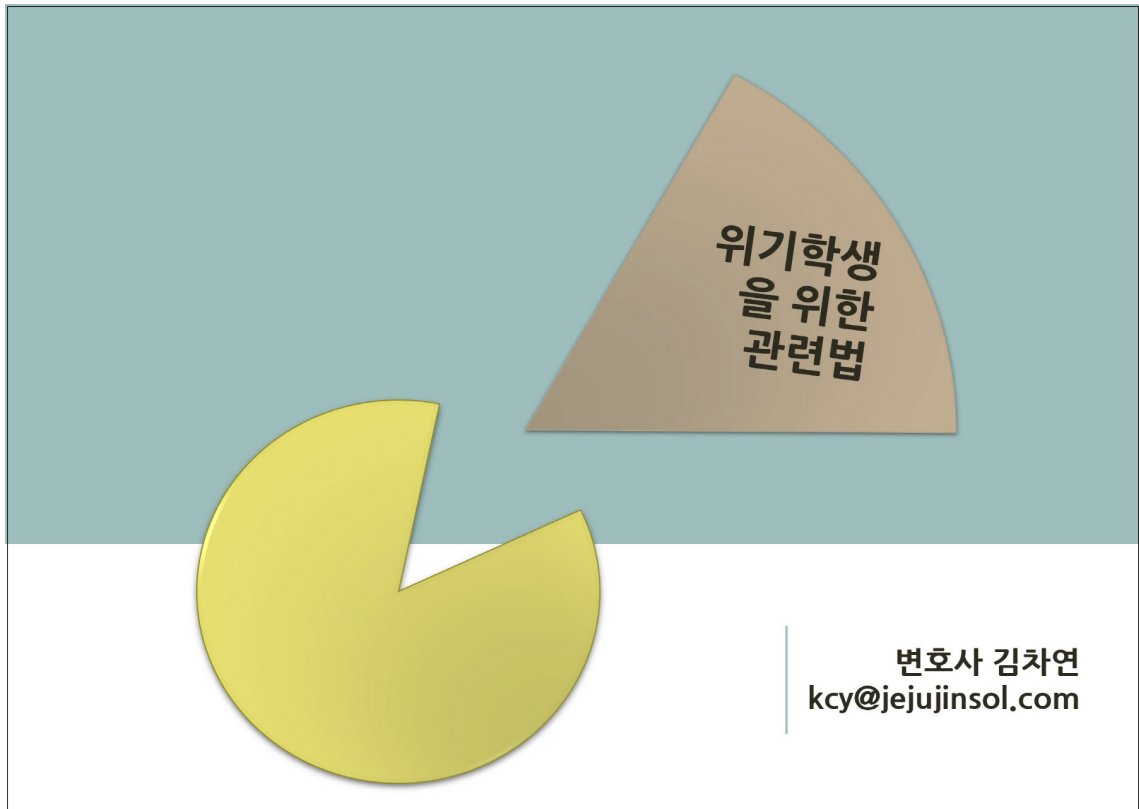
대안교육 담당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 아르바이트, 아동학대, 가출, 소년보호제도 -

김 차 연

제주법률세무경영 진솔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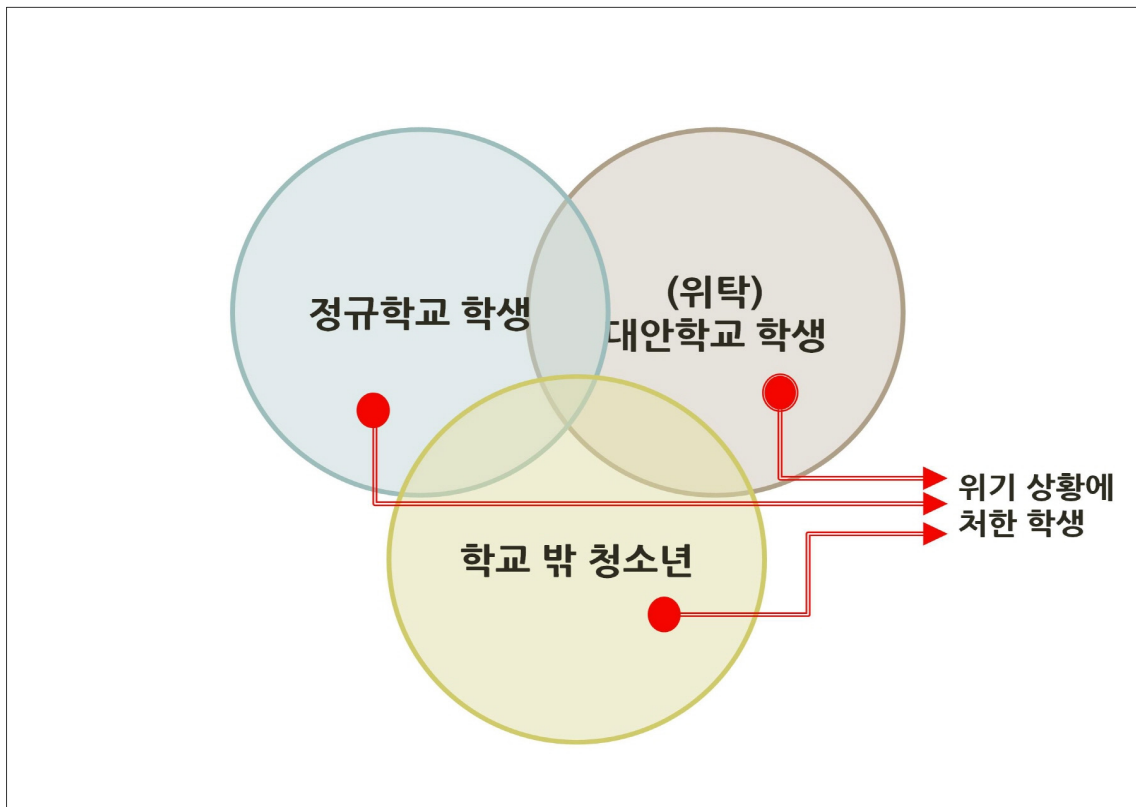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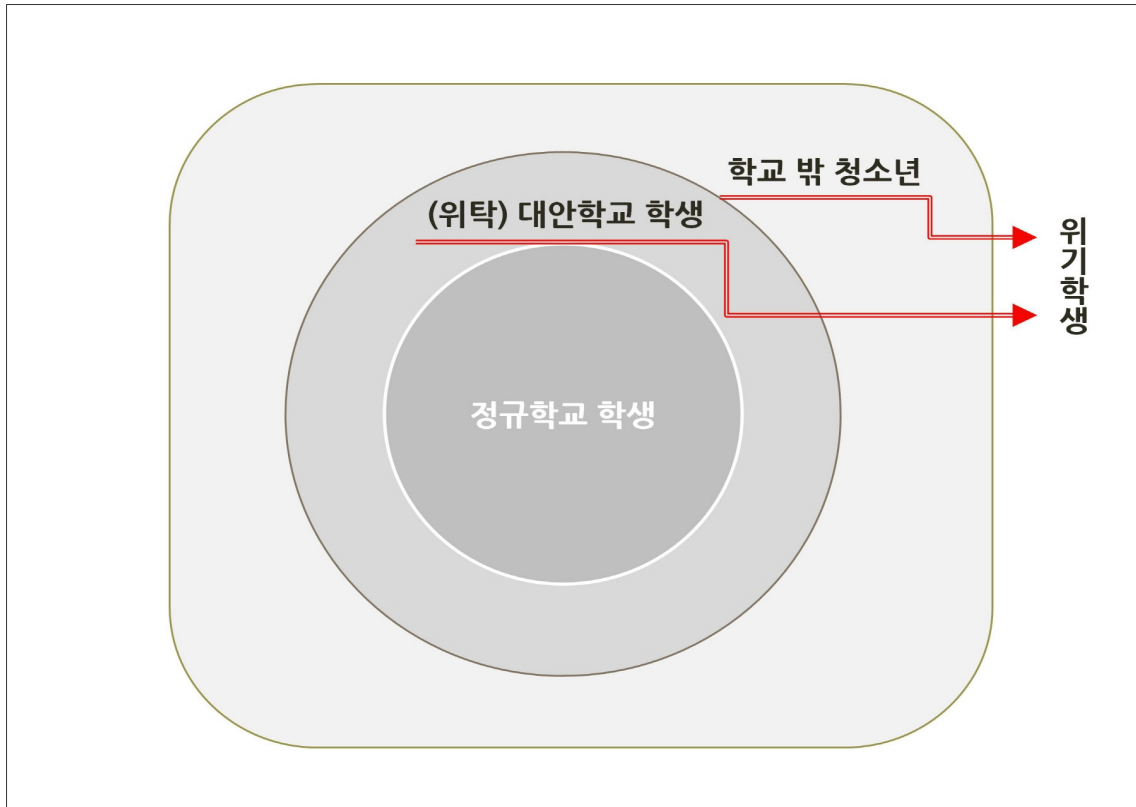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시에 지원하려면 생활의 일부를 함께 해야 합니다.

발생한 문제가 법적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청소년의 인권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례 I 카누선수였던 성원이

성원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카누 선수였으나
사고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 학교는 성원이에 대해 학교부적응 판단하고, 대안학교로 위탁하여 학업을
하게 하였으나 결국 성원이는 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던 회사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고용되었다.



아동학대는 왜 발생할까?



1998년 부모의 구타와 학대에 의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발견된 사건

‘진짜’ 아동학대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내 주변에서는 ‘진짜’ 아동학대를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

아동학대라고 하는 사례 중에는 교육할 때 필요하거나 있을 수 있는
훈육들도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아동의 지위변화(서구)

16세기이전

- 부모의 재물로 취급
- 부모에게 아동에 대한 거의 무제한의 권력 인정
 - 아동에 대한 무시, 방임, 학대, 노예로 판매, 신체훼손 등

16~18세기

- 재산으로서의 지위의 성격에 변화, 하지만 여전히 소유물로 인식
- 가사노동에 기여하고 노령의 부모를 보조하는 것으로 평가
- 개인적 동일성을 무시하고 대체가능하고 교환가능한 존재로 간주
- 어른의 선택이 무조건 아동에게 이로운 것

18세기 이후

- 성인으로부터 “분리된” “존재”

19세기 이후

- 보호의 필요가 있는 특별한 취약 집단(Class)으로서 성인들로부터 분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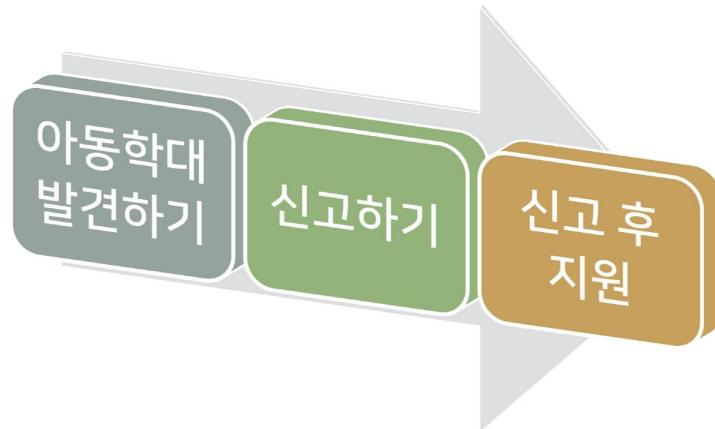
20세기 이후

- 아동을 인경(person)으로 평가
- 아동에 지향된 가족 발생
- 외부의 힘(발달심리학, 소년법원 등)이 아동 부양을 위한 영향력 행사 시작함

아동학대 발생요인 및 결과

구분	요인	결과
 개인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에게 깊은 상처를 줌. √아동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낌. √아동의 신뢰가 파괴됨.
 가족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비가해가족의 죄책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 저하 √부모 및 형제와의 다툼 증가 √가출
 사회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이 √학교폭력, 비행, 자살이 증가함 √약물 남용 및 중독 √성매매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

아동학대 대처방법



1. 아동학대 발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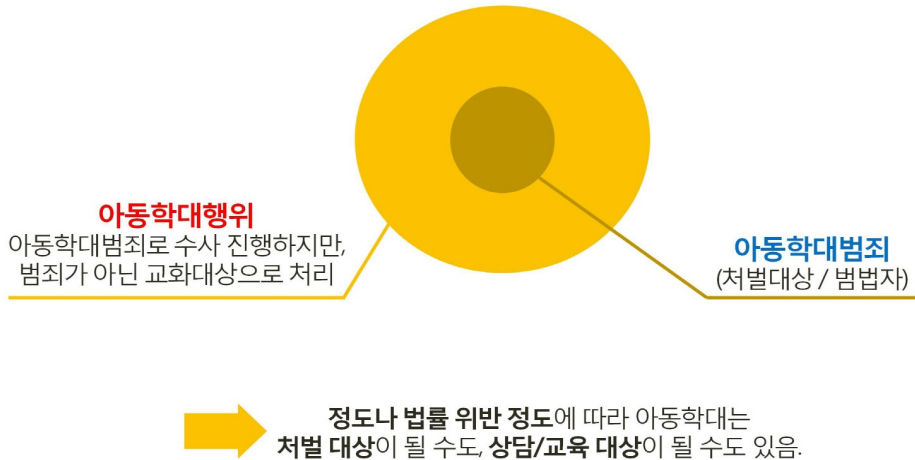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상해죄 등 형법상 범죄 또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



사례 I 신체학대

10대 여제자의 도벽을 교정한다며
각목으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십 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교사

→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다.

사례 I 정서학대

다문화가정 초등생에 막말 교사… '정서 학대'

초등학교 교사에 벌금 300만원 선고

ho@lawtimes.co.kr | 입력 : 2015-02-12 오후 2:53:13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막말을 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육 현장에서 한 말을 '정서 학대'로 인정해 유죄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51)씨는 지난해 6월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자기 반 여학생 B(12)양이 급식 시간에 김치를 먹지 않고 남기자 "너는 반(半)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느냐, 이러면 (나중에) 너희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냐"고 말했다. 며칠 뒤 A씨는 "학원 다니면 손을 들라"고 한 뒤 B양이 손을 들자 "너는 부모 등골 150그램 빼먹는 애"라고도 했다. 또 사건 한달 전에는 B양이 수업 중 질문을 자주하자 반 학생들을 시켜 "○○(B양의 이름) 바보"라고 3회 외치게 했다. A씨는 막말로 제자의 정신건강을 해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2일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6633).

사례 I 정서학대

- 감금이나 억제
- 언어적 폭력행위
- 정서적 위협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 차별 · 편애 ·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

사례 I 성학대

딸이 9살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모텔로 데려가 목욕을 시키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성학대를 한 친부

→ 법원은 미성년자인 딸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도 받아들였다.

사례 I 유기·방임

몇 년째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안에 방치하여,
집안 곳곳 쓰레기더미와 구더기가 발견되게 만든 모



→ 관할구청에서는 폐기물 업체, 청소전문업체에 의뢰하였고, 모에게는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남매를 위탁하였다.

사례 I 유기·방임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TIP I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의사 A씨는 의식을 잃고 이송된 B군을 진찰하던 중 골절을 발견함.

의사 A씨는 B군의 부모에게 골절 원인을 물었으나,
B군의 부모는 당황하며 B군이 혼자 놀다 넘어져 골절이 생긴 것이라고 답변함.

이에 의사 A씨는 B군의 골절 부위를 엑스레이 촬영하고
이전에도 동일 부위의 골절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하였으며,
또한 골절 상태도 단순히 넘어져 생긴 것이 아닌
외부충격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신고전화(112)로 신고하였음.

TIP I 아동진술오염에 주의할 것, 특히 성학대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도1462 판결

“아동 진술의 특성에 관하여 여러 연구 결과와 보고가 있으나, 아동의 연령 폭과 지적능력의 개인차가 크고, 아동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순수성이 있는 아동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적지만 꾸며대서 말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은폐하는 성향 쪽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정보의 양과 정확성 문제, 기억의 보유나 회상의 결함 문제가 있고, 암시성 질문에 쉽게 유도되고 오염되는 경향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부정적 요소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은 아동 진술의 특성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아동복지센터 상담사가 어떠한 전문성이나 자격을 가졌는지 아무런 입증도 없는 데다가 그 면담 내용을 보면 상담사가 이미 어른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이라는 것과 그 내용을 들었다고 보이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이른바 제2차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면서 사건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검토는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며, 범행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 계속 반복적인 유도질문으로 면담자의 질문에 자신을 협조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와 질문자의 바람대로 대답해 주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는 아동이 그 암시성에 영향을 위협성이 있는 상태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상태는 위 증인신문절차에도 그대로 이어져 그 진술의 신빙성과 정확성에 대한 검토는 별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암시성 질문 X / 유도성 질문 X / 반복적 질문 X

2. 신고하기

- **112 통합**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할 것
- 아동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좋음

신고의무자

- ▶ 법은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를 부여하였음
-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 | | |
|-----------------------------------|---|
|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6.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종사자 |
|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7.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
| 3. 아동복지상담센터 | 18. 청소년보호 및 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
| 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19. 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교육복지사 포함) |
| 5.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2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 6. 사회복지상담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21.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종사자 |
|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22.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 8.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 23. 아이돌봄비(아이돌봄지원법상) |
| 9.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24.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드림스타트) |
| 10. 급급대원 | |
| 11. 응급조사 | |
| 12. 복귀교육 | |
| 13.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
| 14. 의료기사 | |
| 15.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TIP I 부모의 정당한 징계권행사라는 보호자의 주장에 대하여...

-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음(민법 제913조)
-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민법 제915조)
- **하지만**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됨(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

징계 훈육

판단기준은 아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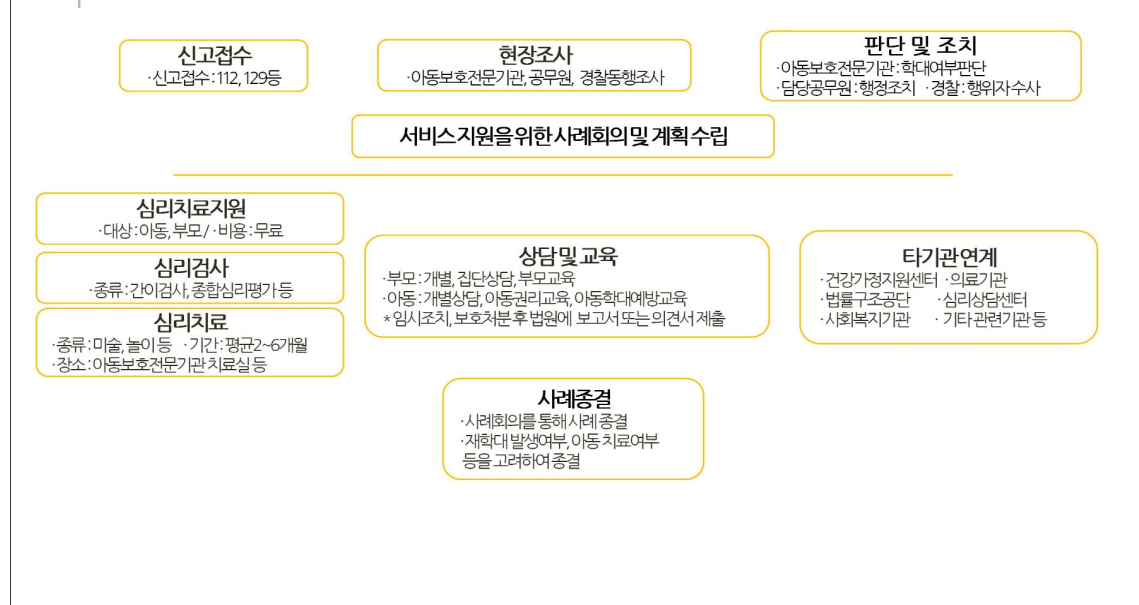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

정당한 친권의 행사
(민법)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3. 신고 후 지원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친권상실 등

- ▶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 한편 민법에 근거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후견인의 변경을 선고할 수 있음

가출

가출청소년에 대한 관점

비행청소년, 예비범죄자라는 차별적 시선, 낙인

소년법 제4조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원인

- 문화적 행위
- 아동학대 등 청소년 개인의 반사회적 행위로 보기 어려움

결과

- 불가시성의 증대
- 취약성의 가속화
- 차별의 재생산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

“거리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과 낙인,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특히 “이들에 대한 범죄화를 중단할 것을 국가의 우선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탈가정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출가

청소년 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가출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함
- 기간에 따라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 쉼터로 구분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청소년쉼터를 확인

"쉼터는 비행청소년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인터뷰] '학교 밖 청소년' 민아씨의 중장기 쉼터 만들기 펀딩 프로젝트

15.12.20 11:39 | 최종 업데이트 15.12.20 11:39 | 진일석(jin1010) ▼

f 좋아요 <995 + 크게 | - 작게 | 인쇄 | URL줄이기 ☆스크랩

f 113 t g+ 7

W 좋은기사 원고료주기

👍 10

💬 댓글달기

"46.1%"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이다(표본 5000명 중, 만 18세미만 자녀를 둔 1380명에 대한 응답 결과, 정서적 폭력 포함). 학교폭력은 전학이라는 선택지가 있지만,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청소년은 어디로 가야 할까?

-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서, 혹은 그냥 민아씨가 많은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쉼터에 산다고 비행 청소년일 거라고, 학교 밖 청소년은 사고쳐서 학교 그만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시선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은 낮에는 학교에 있잖아요? 저같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평일 낮에 시내버스를 타면 기사님들이 성인요금을 내라고 해요. 청소년증을 보여드려도 이게 뭐냐고, 학생증을 보여달라는 분들도 있고요.

실종신고 의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 (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6.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실종아동법의 “아동”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사례 I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죄

유부남인 김모씨(35)는 모 식당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15)양과 교제를 시작했다. A양은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혼을 내자 집을 뛰쳐나왔다. 김씨는 A양의 가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A양의 집과 떨어진 먼 거리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A양과 머물며 나흘이 지나서야 A양의 집 근처로 돌아왔다.

➔ 법원은 김모씨에 대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례 I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죄

A씨는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가출해 실종 신고된 10대 청소년을 만나 한 달 가량 모텔 등지에서 함께 숙식하고 생활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실종신고된 가출 청소년임을 알고도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 등지에 머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사례 I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아니지만...

B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A양을 "양아빠가 돼 주겠다", "잠잘 곳을 주겠다"며 A양을 꼬드겨 보호시설인 쉼터에서 나오게 한 뒤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약 일주일간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 법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그러나 법원은 "실종아동법은 . "해당 법률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해치는 '미신고 보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A양을 유인·지배한 윤씨의 행동을 '미신고 보호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라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이 유혹이나 속임없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가출하여 귀가하지 않은 것이며, 더불어 고발당한 비청소년이 여러 차례 귀가를 권유한 사정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음(1998. 대법원 판결).

사례 I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

→ 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도8011 판결).



아르바이트

최하위의 먹이사슬

- 임금은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절반
- 임금체불 또는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17.5%, 부당해고가 7.3%
- 청소년 노동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도 '최하위의 먹이사슬', '가장 밑바닥'에 위치하고 있음.
-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불이익 경험이 높게 나타났는데, 학습 뿐 아니라 노동의 영역에서도 인권을 위협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근로기준법 상 청소년 노동자 보호

- 일할 수 없는 연령 :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
단, 취직인허증을 지니면 가능(13세 이상 or 13세 미만이어도 예술공연참가를 위한 경우에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일할 수 없는 장소 : PC방, 만화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복권발행업, 안마실을 설치한 숙박업·이용업·목욕장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함
(근로계약서)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가능)
-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함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노동부장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임금체불)

1) 임금체불 증빙자료를 준비할 것

2)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할 것

- 근로계약서, 구인광고(매장광고 사진, 인터넷 광고 캡처 등)
- 임금지급명세서(임금봉투), 임금지급 통장내역, 임금체불액 정리자료
- 매일 근무내용 기록(일한 날짜 및 시간, 임금)

3)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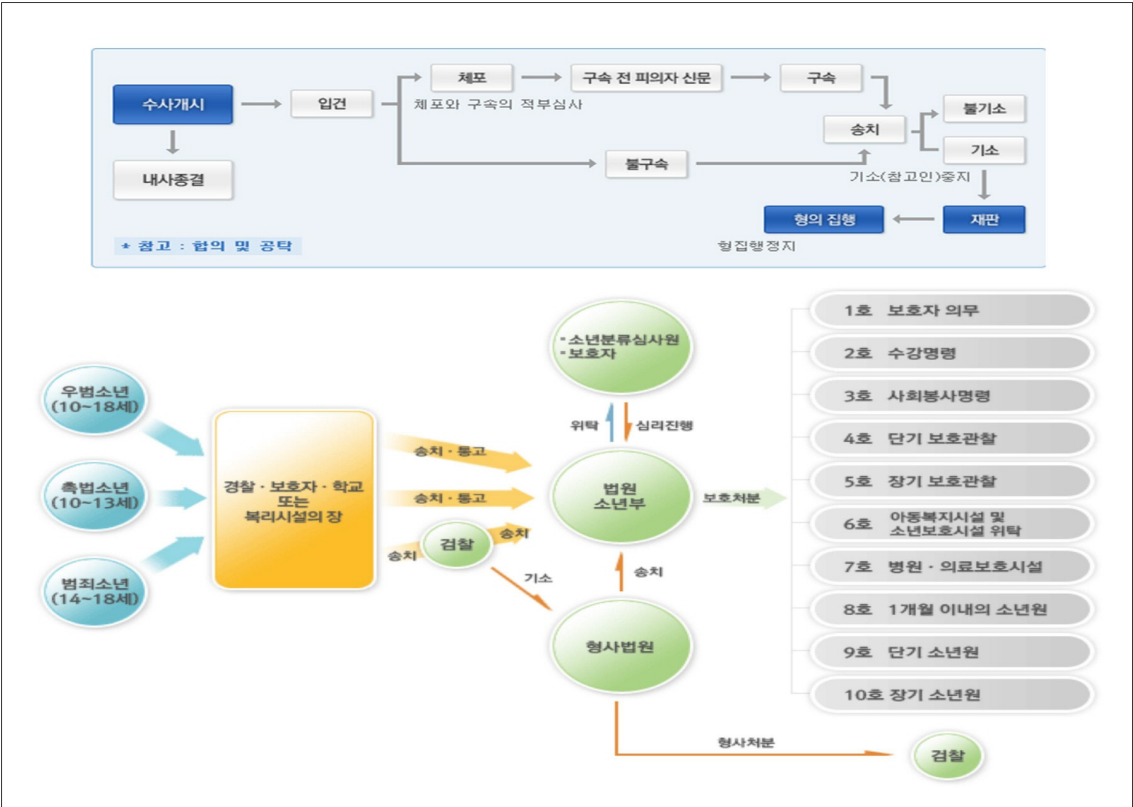
※ 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옹호부즈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알바노조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Korea Labor Service (고용노동부).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민원마당' (Citizen Plaza), '참여마당' (Participation Plaza), '알림마당' (Notice Plaza), '정보마당' (Information Plaza), '정책마당' (Policy Plaza), and '기관소개' (Agency Introduction). The '민원마당' section is expanded, showing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민원안내', '법령·제도상답', '신고센터' (highlighted with a red box), '민원신청', and '민원조회/발급'.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list of recent notices and a sidebar with various services like '자주찾는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찾는자료실' (Frequently Searched Data Room), '워크넷' (Worknet), '일자리정보' (Job Information), '인재정보' (Talent Information), '고용보험(EI)', 'HRD-Net', and '외국인고용허가' (Foreign Employment Permit).

소년 보호제도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





분류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
목적	실체적 진실발견	환경조정과 품행조정을 통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
대상연령	만 14세 이상	만 10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심리 (검사의 출석여부)	검사 출석	검사 불출석, 항고권도 없음
최종결론	판결(전과가 됨)	보호처분결정(전과가 되지 아니함)
집행	검사	소년부 판사

보호처분의 기준

- 비행사실의 경중뿐 만 아니라 가정환경, 친구관계, 학교에서의 생활, 소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보호관찰제도

- 보호소년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개선·교육하는 제도
- 법원은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으로 대안교육, 상담교육을 명할 수 있고, 외출제한명령, 검정고시 준비명령, 심리치료명령,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학교에 잘 다닐 것 등을 명하기도 함
- 위반 시 제재로 소년이 보호관찰소 출석, 외출제한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다 무거운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TIP

- 경찰조사, 재판에 보호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을 적극 고려 할 것

← 재판의 결과는 물론 소년의 정서에 도움이 되기 때문

→재판(심리기일)의 일시·장소, 보호자 출석여부를 미리 확인해두기

- 보호관찰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련의 과정에서 내외부적으로 낙인되어 악순환의 시작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

감사합니다

제주법률세무경영 진솔
김차연
kcy@jejujinsol.com



부 록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자료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자료

Homepage: www.gotoschool.re.kr

◎ 발행 자료

○ 자료실 > 통합자료실

－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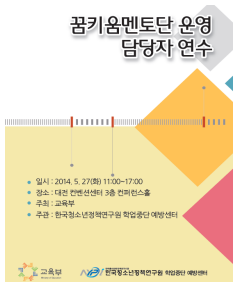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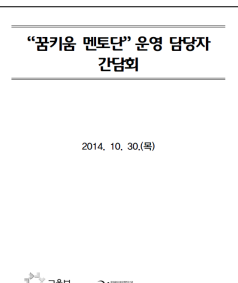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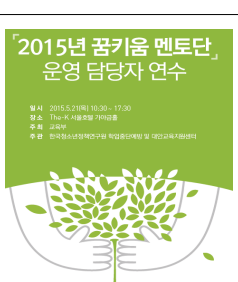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 집중 연수 · 5차 학업중단 예방 3차: 대안교실 · 5차: 대안교실 운영 사례 · 5차: 교복 · 5차: 대안교실 운영 사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 집중 연수 - 학업중단학생 실태, 지원 및 연계 방안 -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운영 사례 - 학업중단 위기학생 상담기법	2014.02.03
 2014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일시: 2014. 7.23(수) 11:00 ~ 7.24(목) 11:00 장소: (대전)대전광역시 1층 주최: 교육부 주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2014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개 권역 실시) -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대응 방향 -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배경 - 학업중단 위기 과정에 따른 상담기법 - 학업중단 예방 운영 사례	2014.08.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일시: 2015. 2.23(수) 11:00 ~ 2.24(목) 11:00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주최: 교육부 주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개 권역 실시) - 학교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계획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사업의 이해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교복우 사업) - 학업중단 위기관리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계 사례	2015.02.16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원연수 일시: 2015. 7.23(수) 11:00 ~ 7.24(목) 11:00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주최: 교육부 주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원연수 - 학교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계획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사업의 이해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교복우 사업) - 학업중단 위기관리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계 사례	2015.0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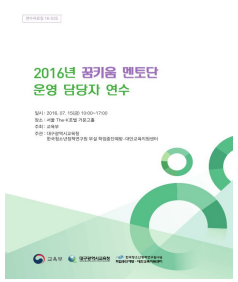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일시: 2015. 8. 30(월) 11:00 ~ 12:00 장소: 중앙교육청 2층 대상: 교육청 주최: 교육청 주최: 중앙교육청 주최: 중앙교육청 주최: 중앙교육청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개 권역 실시)	-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사업 소개 -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이해와 멘토링을 위한 지원 방법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사례 - 해외의 학업중단 예방 대책 2015.07.30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원연수 일시: 2016. 2. 16(수) 13:00 ~ 15:00 장소: 중앙교육청 2층 대상: 교육청 주최: 교육청 주최: 중앙교육청 주최: 중앙교육청 주최: 중앙교육청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원연수 (4개 권역 실시)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사업의 이해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꿈키움멘토링)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사례 -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개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2016.02.16

－ 대안교실 매뉴얼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매뉴얼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매뉴얼	- 대안교실의 이해 - 대안교실 운영 가이드 -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형 - 학교 별 특성 (10개 학교 사례) 2016.03.08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가이드북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가이드북	-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의 이해 - 진로의사결정에서의 고려 사항 - 학교 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4개 학교 사례) 2016.0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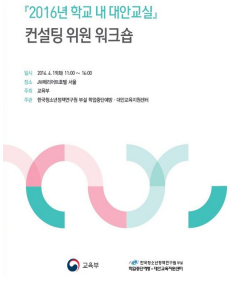
- 꿈키움 멘토단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일시: 2014. 5. 27(목) 11:00~17:00 장소: 대원 컨벤션센터 3층 컨퍼런스홀 주최: 교육부 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 예방센터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 꿈키움 멘토단 운영 지원 방안 - 청소년 멘토링의 이해와 운영자의 역할 - 멘토링 사업 기획과 운영방안	2014.05.27
 꿈키움 멘토수첩	꿈키움 멘토수첩 - 멘토링 성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개 - 멘토링 상담 · 활동 · 튜터 · 면담일지, 멘토링 운영 활동계획서	2014.05.27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간담회 2014. 10. 30.(목)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간담회 - [전문가특강] 학업중단 청소년과 멘토링 - [사례 발표] ‘제주도 꿈키움 멘토링’	2014.10.30
 2015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일시: 2015.5.21(목) 10:30 ~ 17:30 장소: TBS-K 서울로컬 센터 401호 주최: 교육부 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2015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 2015년 학업중단 예방 대책 추진 계획 - 꿈키움 멘토링과 관리자의 역할 - 꿈키움 멘토단 운영 사례	2015.05.20
 꿈키움 멘토링 매뉴얼	꿈키움 멘토링 매뉴얼 - 꿈키움 멘토링의 개요 -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해 - 멘토링의 실제: 운영절차 및 학교 · 지역사회와 관계 맺기 - 멘토를 위한 지침 - 꿈키움 멘토링 사례	2016.03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일시: 2016. 07. 15(금) 15:00~17:00 장소: 서울 744-4300 대안교실 주최: 교육부 주관: 한국청소년상담지원단 한국청소년상담지원단 부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전국4개지점)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 학업중단 예방 정책 소개 - 멘토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 - 꿈키움 멘토단 운영사례 (교육지원청, 교육청, 학교, 민간단체)	2016.07.15

- 컨설팅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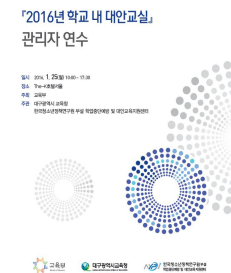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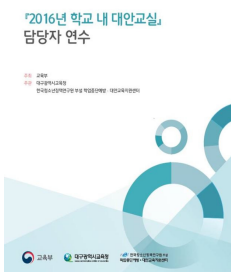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일시: 2015. 4. 16(목) 11:00 ~ 15:00 장소: 서울 연세대학교강남캠퍼스 주최: 교육부 주관: 한국청소년상담지원단 부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전국4개지점)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개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중점사항 및 실무안내	2015.04.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일시: 2015. 4. 28(목) 11:00 ~ 16:00 장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10층 대회의실 주최: 교육부 주관: 한국청소년상담지원단 부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전국4개지점)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 학교 내 대안교실 추진계획 및 컨설팅 사업 소개 -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	2015.04.28
 2015년 대안학교 등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위원 워크숍 일시: 2015. 6. 4(목) 10:00 ~ 17:00 장소: 서울 연세대학교강남캠퍼스 주최: 교육부 주관: 한국청소년상담지원단 부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전국4개지점)	2015년 대안학교 등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위원 워크숍 -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의 필요성 및 영역(프로그램 설계, 동기유발, 직로직업 심리검사, 대학진학·비진학자 경력개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이해 - 대안학교 등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내용 및 실무안내	2015.06.04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일시: 2016. 4. 19(월) 15:00 ~ 18:00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과학연구원 주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과학연구원 (연계교육지원청)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 소개 및 우수사례 발표 - 시·도별 분임토의 및 결과발표 -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사업 소개 및 향후 추진 일정 논의 2016.04.19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일시: 2016. 5. 4(목) 15:00 ~ 18:00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과학연구원 주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과학연구원 (연계교육지원청)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 학업중단 예방 대책 추진계획 및 우수사례 발표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의 역할 이해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중점사항 2016.0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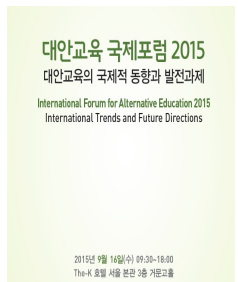
- 우수사례 공모전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4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2014년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교원부문 25개, 학생부문 5개 사례 2015.04.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초등학교 6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1개 사례 2016.03.08

－ 대안교육 연수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4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연수 날짜 2014. 8. 22(화) 14:00 ~ 8. 23(수) 15:00 장소 경기도 안성시 대안교육지원센터 (안성대안교육지원센터) 주최 교육부 주관 대안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연수 - [심리특강]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대안, 대안교육 톺아보기 - [진로교육특강] 웃음을 활용한 진로지도, SCEP 진로교육 프로그램 - [리더십특강]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리더십 - 대안교육 모범프로그램(영산 성지교)	2014.08.22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날짜 2015. 5. 22(화) 14:00 ~ 5. 23(수) 14:00 장소 대안교육진흥원 주최 교육부 주관 대안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개 권역 실시) -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의 이해 - 대안교실 구성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 대안교실 운영사례	2015.05.22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날짜 2015. 7. 10(수) 14:00 ~ 7. 11(목) 14:00 장소 대안교육진흥원 주최 교육부 주관 대안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 동기회복법: 청소년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책 및 동기회복 프로그램 - 창의적 진로개발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의 이해와 활용, 청소년 기업가정신) - 진로지도 사례 - 대안학교 대입진학지도	2015.07.0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날짜 2016. 1. 22(화) 14:00 ~ 15:00 장소 7층 4층교실 주최 교육부 주관 대안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4개 권역 실시) -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의 이해 - 대안교실의 성공적인 운영 전략 - 대안교실 운영 사례	2016.01.2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날짜 교육부 장소 대안교육진흥원 주최 교육부 주관 대안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개 권역 실시) -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의 이해 - 2015년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운영사례 -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이해 -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사례	2016.05.09

- 국제포럼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정책과 실천 International Forum for Alternative Education 2014 International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Policy and Practice 2014년 9월 25일(목) 9:00 ~ 20일(금) 12:00 The-K 호텔 서울 3층 7개강당 September 25-30, 2014 The-K Hotel Seoul, Geomung Hall	2014년 대안교육 국제포럼 - 영국, 미국, 독일, 덴마크 등 대안교육 발전 동향 및 정책현황 - 샌즈스쿨(영국), 메트스쿨(미국), 발도르 프학교(독일), 헤스테하베 자유학교(덴마크), 이우학교(한국) 등 대안교육 사례	2014.09.25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International Forum for Alternative Education 2015 International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2015년 9월 16일(수) 09:30~18:00 The-K 호텔 서울 3층 7개강당 September 16-17, 2015 The-K Hotel Seoul, Geomung Hall	2015년 대안교육 국제포럼 - 독일, 호주, 덴마크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 - 생산적 학습(독일), 한스온 러닝(호주), 곤잘로 가르자 독립학교(미국), 빅피쳐 러닝(미국), 프레네 교육(프랑스),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쿨레(덴마크) 등 대안교육 사례	2015.09.16

○ 자료실 > 학업중단대책매뉴얼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킬라잡이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 - 교육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교사용) - 학업중단 현황 및 학교 밖 청소년 실태 -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방안 -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배경 및 단계별 운영방법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사례 등	2015.02.27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킬라잡이 - 부록: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 교육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 17개 시도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목록	2015.02.27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 학교 밖도 다른 길 찾기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 － 학교 밖 상담 · 학업 · 취업 및 진로 · 경제적 지원 안내 및 관련 기관 소개	2015.08.25
 학생 학업중단을 위한 학업중단 예방 길라잡이	학업중단 예방 길라잡이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업중단 위기 대처 방안, 관련 정책 및 위기 극복 사례 소개	20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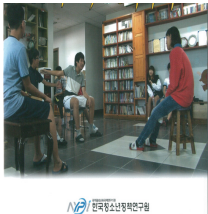
○ 알림공간 > 학업중단을 고민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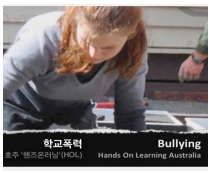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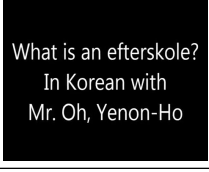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학교희망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학업중단 예방 리플릿 － 학업중단숙려제 · 학생지원 · 예방체제와 대안교육에 대한 소개	

◎ 영상 콘텐츠

○ 자료실 > 영상콘텐츠

“교육의 길을 묻다” (EBS)			
자료명	주요 내용		방영시간
	1부 대안교육, 다시 대안을 찾다	- 밀알 두레학교, 간디 자유학교, 덴마크 자유학교, 독일 발도르프 학교 등 국내·외 대안학교 장·단점	44' 57"
	2부 거리에서 헤매는 학교 밖 아이들	-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실태(가출, 비행 등) - 학교 밖 청소년 포용 방안 모색	47' 56"
	3부 변화? 힘들지만 두렵지 않다	- 두드림청소년회복센터, 샘물의 집, 경북청소년진흥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사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가정과 학교가 양립한 일본 오사카부립 슈토쿠 학원 사례	46' 42"
	4부 기로에 선 학교 부적응 아이들	- 재미있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종암중학교의 신바람 대안교실 프로그램 사례 -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복귀 프로그램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 사례	48' 05"
	5부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교육복지	- 농어촌 교육환경을 극복한 군포중, 속리산중 소개 - 다문화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48' 35"

“대안교육을 돌아보다” (SBS)			
자료명	주요 내용		방영시간
	1부 대안학교의 현실	- 태봉고, 서울실용음악고, 다인학교 등 국내 대안학교의 특징과 덴마크 대안교육의 제도 소개	56'
	2부 대안학교의 미래	- 태봉고, 서울실용음악고의 대안학교 운영사례 - 덴마크(니스테드 애프터스쿨레), 프랑스(프레네 교육) 등 해외 대안교육의 제도 소개 및 우수사례	50'
	1부 대안학교 문제 사례	- 미인가 대안학교의 문제점 등 국내 대안 교육의 실체	14' 28"
	2부 국내 대안학교 우수사례	- 태봉고, 서울실용음악고의 대안학교 우수 사례 - 공립학교(웅상중) 대안교실 우수사례	12' 24"
	3부 해외 대안학교 우수사례	- 덴마크, 프랑스 등 해외 대안학교 운영 우수사례	16' 57"

“우리는 두 번째 학교에 간다” (KBS)			
자료명	주요 내용		방영시간
	1부 경계에 선 아이들	-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계기와, 현재 학업중단과 복교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56' 55"
	2부 세상을 향해 외치다	- 좌절과 소외 속에 살아가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연극치료를 통해 상처를 치유해 가는 과정	56' 07"
	1부 SOS 학교 밖 아이들	-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학업중단 원인별 학생들의 이야기	11' 07"
	2부 벼랑 끝에서 만난 두 번째 학교	- 서울시 친구랑센터, 서울시립청소년드림 센터 등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성공사례 -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등 학업중단 예방 제도	11' 27"
	3부 학업중단자를 위한 세계의 학교	- 일본 프리스쿨 도쿄슈레, 덴마크 애프터스쿨, 미국 빅피쳐스쿨 등 국외 대안학교 우수 프로그램	11' 43"
2015 국제포럼			
자료명	주요 내용		시간
	덴마크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콜레 소개	덴마크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콜레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학교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콜레 학생들의 일과와 다양한 활동을 소개	1' 47"
	미국 곤잘로가르자 독립고등학교 소개	곤잘로가르자 학교는 위기학생의 수행성과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어 대안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된 학생들의 이야기	7' 01"
	Hands On Learning	국내의 '학교 내 대안교실' 과 비슷한 해외 사례. 팀프로젝트, 목공, 집짓기 등 다양한 노작활동 중심의 활동 학습으로 학업중단위기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또는 스스로 성공경험을 쌓아가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습득하며 변화된 학생들의 이야기	4' 49"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홍보 (애니메이션)	덴마크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숙학교인 에프터스콜레에 대해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하는 영상	2' 36"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홍보(국문)	덴마크 에프터스콜레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	58"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인 쇄 2016년 8월 6일

발 행 2016년 8월 8일

발행처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인쇄처 경성문화사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044-415-2160)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